

201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총회

하나로
하나로
만드는길

2011. 3. 7(월) 오후 6시
송실대 한경직기념관 1층 김덕윤예배실
후원 / 송실대학교

2011년 기윤실 회원총회

“마음모아 만드는 길”

발행일 | 2011년 3월 7일

발행인 | 우창록

편집인 | 조제호

발행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이메일_ cemk@hanmail.net

www.cemk.org

*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1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총회

하나로
하나로
만드는길

2011. 3. 7(월) 오후 6시
송실대 한경직기념관 1층 김덕윤예배실
후원 / 송실대학교

2011년 회원총회 회순

□ 개회선언 : 성원보고	우창록 이사장
• 개회기도	손인웅 이사
• 축사	김대근 총장(승실대)
□ 사무회의 (사회 : 우창록 이사장)	
• 회순 채택	사회자
• 전 회의록 채택	사회자
• 2010년도 사업 보고	조제호 사무처장
• 2010년도 재정 결산 보고	조제호 사무처장
• 2010년도 회계·업무 감사 승인	사회자
• 정관 개정	사회자
• 임원 개선(이사장, 공동대표, 이사)	사회자
• 이사장 이·취임사	우창록 이사장 / 신임 이사장
□ 비전 메시지	신임 이사장
□ 사무회의 (사회 : 신임 이사장)	
• 2011년도 사업 계획 보고	조제호 사무처장
• 2011년도 예산 계획 보고	조제호 사무처장
□ 2011년도 기윤실 사업 회원투표	조제호 사무처장
□ 비전을 위한 기도회	신동식 정직윤리운동본부장
□ 폐회 선언	신임 이사장
□ 기념 사진 촬영	

목 차

회순 채택	2011년 회원총회 회순	5
	목차	6
전 회의록 채택	2010년도 회원총회 회의록	8
2010년도 사업보고	2010년 기윤실 사역열매 신뢰나무	10
	2010년도 사업 요약보고	11
2010년도 재정결산 보고	2010년도 회계감사 보고	14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15
	2010년 후원자명단(개인/단체)	18
	외부회계감사인의 건의사항	20
2010년도 내부감사 보고	2010년도 내부감사보고서	22
	정관 개정	24
	임원 개선	26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	2011년도 사업 계획안	28
	기윤실 운동방향과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일정 기윤실 운동방향안, 조직개편안 2011년 사업개요, 사업일정	
	2011년 사업 세부기획안	32
	1. 목회자윤리운동	32
	2. 사회이슈 실천운동	33
	3.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34
	4.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35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36
	6. 기윤실 포럼 - 싱크탱크	37
	7. 기독교민교육운동	38
	제9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39
2011년도 예산계획 보고	2011년도 예산안	40
책속의 책	2010년 사역열매 보고	43
부록	기윤실 정관	80
	기윤실 전국 네트워크 소개	84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회원총회 3탄	85
	기윤실 2011년 사역 후원 기도편지	86
기윤실 사업 회원투표 안내	회원님의 관심사업을 선택해 주세요!	87

책속의 책 목 차

2010년 사역열매보고	44
○ 2010년 기윤실 주요사업 선정절차	45
1.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46
컨퍼런스 비전나눔 요약	
프로그램 일정 요약	
참가자 통계	
참가자 평가	
2. 기독시민교육프로그램	50
미셔널혁신독서클럽 후기	
참가자 인터뷰 : 백요한 회원	
3. 365 말씀과실천 캘린더	53
4. ISO26000 교회표준 개발	54
ISO26000이란?	
ISO26000을 교회에 적용할 때의 7대 이슈별 주요측면들	
5.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58
아카데미 후기 : 배영오 전도사	
6.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60
7.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64
8. 지방선거 캠페인 "Talk, Pray, Vote!"	68
9. 아기와 함께 가고싶은 교회운동	71
아기와 함께 가고싶은 교회 캠페인	
저출산시대와 예비공동체	
10. 대한민국교육봉사단 - 씨드스쿨	74
씨드스쿨 T(교사) 참여 후기	
11. 회원운동 / 브랜드컨설팅	76
○ 2009년도 기윤실 사역일정표	79

2010년도 회원총회 회의록

- 일시 : 2010년 2월 22일(월) 오후 6시~8시 40분
- 장소 :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1층 김덕윤 예배실
- 참석 : 개인회원 44명, 교회회원 3곳(5명), 비회원 34명

* 비회원은 정관상 6개월 미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참관인을 뜻합니다. 비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고, 계수가 정확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 6시 김대근 총장(송실대)이 축사해 주시다.
- 6시 20분 권성호 공동대표(청주기윤실)의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다.
- 7시부터 공정여행 UCC 영상, 절친노트 진행하다.
(양세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공정무역과 공정여행 소개 및 절친노트 진행, 재생종이 소개)
- 7시 15분 우창록 이사장이 개회를 선포하다.
- 이장규 공동대표가 개회 기도를 하다.
- 손봉호 자문위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지다.
- 회원 43명, 교회 2곳(3명)이 참석하여 개회하다.
- 사회자가 의결을 위한 의사표시 방법(색상 카드)을 설명하다.
- 회순을 원안(자료집 5p)대로 채택하다.
- 전 회의록을 원안(자료집 8p)대로 채택하다.
- 2009년 기윤실 사업을 영상으로 보다.
- 양세진 사무총장이 2009년 사업 및 재정결산(자료집 12, 13p)을 보고하다.
- 하재웅 회원이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기윤실의 입장이 어떠한지 질의하다.
- 양세진 사무총장이 다음 이사회를 통해서 입장을 표하기로 하다.
- 우창록 이사장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설명하다.(공동대표단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만나 건축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전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 절차는 사랑의 교회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함)
- 사회자가 외부 회계 감사보고와 재정결산 결과(자료집 14~17p)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받다.
- 지역기윤실 관계자들을 소개하다.(인천, 청주, 대전, 전주, 익산, 진주, 부산)

- 이장규 공동대표가 안식년(학교)으로 공동대표직을 사임함을 보고하다.
- 공동대표로 강영안 이사(서강대 철학과 교수), 박은조 이사(샘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 이사(경상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를 선출하다.
- 신임이사로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김창성 사무총장(CBMC), 배종석 부원장(기독교경영연구원)을 선출하다.
- 아이티 긴급구호 기금모금 현황을 보고하다. 2월 22일 18시 현재 14,205,710원이 모금되다. 모금액을 "한국교회아이티연합"에 전달하여 사용하기로 하다.
- [회원참여 1] 회원과 함께 하는 상상뉴스를 기윤실 고양회원들의 준비로 진행된다.
- 임성빈 공동대표가 "왜 보입니까(요9:1-7)"라는 제목으로 비전메시지를 전달하다.
- 양세진 사무총장이 2010년 기윤실 사역 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고 원안(자료집 20p, 30p)대로 받다.
- 회원 세 분의 질문에 양세진 사무총장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다.
 - 질문 1. 손봉호 회원 - 인건비 상승 이유
 - > 2010년 기윤실 인력 확충을 기대하고 그 액수를 잡아 둔 것이라 설명
 - 질문 2. 유현숙 회원 - 2009년 결산에 있는 브랜드컨설팅에 대해 설명 요청
 - > 기윤실 사업의 방향성 점검을 위해 진행, 2010년까지 할 예정
 - 질문 3. 기윤실 간사교육비 상승 이유 - 해외연수 목적
- 양세진 사무총장이 2010년 핵심사업 내용 6가지와 선정방법을 설명하다. 회원들이 4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9개 사업안에 투표하다. (9개 보드에 4개 스티커 붙이기 - 핵심사역 6개, 협력사역 3개 단, 한 사역에 2개 이상 투표할 수 없음)
- [회원참여2] 대사리졸업생들이 특별공연을 하다.
- 핵심사업 투표결과 <기독교시민교육프로그램>이 105표(회원 92/ 비회원13),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117표(100/17)로 선정되고, 협력사업으로는 <씨드스쿨>이 63표(55/8)로 선정되다.
- 김윤배 사무국장(전주기윤실)의 인도로 비전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된다.
- 사회자의 폐회 선언으로 총회를 마치다.
- 기념 사진을 촬영하다.

2010 기윤실 사역 열매 신뢰나무



2010 기윤실 사역은
 하나님 의 은혜와 후원 교회
 회원님의 기도 와 격려를
 통해 이루어 졌 습 니 다 감 사 합 니 다

2010년도 사업 요약보고

1. 6대 주요사업

사업명	2010년도 진행상황	23,130,663원
*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1. 취지 - 공적기관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도전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전문단체와 지역교회의 다양한 사례를 직접 강의 및 자료집으로 제공 -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한 실제 매뉴얼 작성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 2. 일시/장소 : 8월30일(월)~9월1일(수) / 필그림하우스 3. 67명 목회자 참여 4. 비전강사 : 박은조 목사, 김동호 목사, 임성빈 교수 5. 워크숍강사 : 원기준 목사, 성석환 교수, 정재영 교수, 양재성 목사, 윤선주 목사, 신산철 목사	20,314,258원
* 기독교민 교육프로그램	1. 1기 미셔널 독서클럽(9명 참여) - 일시/장소 : 3월11일~4월22일(6주) / 서대문교회 - 나눔도서 : 마음의 혁신(달라스 윌라드), 회심(짐 윌리스), 다윈 주의 사회에서의 복음(레슬리 뉴비긴),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무하마드 유누스) 2. 2기 윤리적 혁신 독서클럽(6명 참여) - 일시/장소 : 5월18일~6월22일(6주) / 기윤실창의상상룸 - 프로그램 :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비롯한 5권의 책을 읽으며 기독교의 덕 윤리와 소통, 타자성의 의미를 탐구.	288,955원
* 365 말씀과실천 캘린더	1. 말씀과실천을 주제로 탁상용 캘린더 제작 2. 기윤실 후원교회인 부천평안교회(원영대 목사)와 청주기윤실에서 제작완료	118,200원
* ISO 26000 교회실천 가이드스 (표준개발)	1. 한국교회SR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구성해서 사업진행 2.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 일시/장소 : 10월8일(금) 오후2시 / 청어람 - 기초발제 : 황상규 박사(ISO전문위원) - 주제발제 : 황호찬 교수, 김종철 사무국장(기독교법률가회), 조성돈 교수	2,269,550원
*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1. 일정 : 6월14일~7월5일 매주 월 14시~18시 2. 강사 - 1주차(6/14) : 김범석 목사(열매나눔재단), 윤선주 목사(커피밀) - 2주차(6/21) : 양용희 교수(호서대), 박철 교수(고려대) - 3주차(6/28) : 사회적기업 견학 "고마운손 메자닌에코원" - 4주차(7/5) : 정무성 교수(숭실대), 이상진 사무국장(열매나눔재단) 3. 참가인원 : 총인원 46명, 주평균 30여명	129,700원
*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1. 기윤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종이와 높은뜻정의교회 주보를 재생 종이 샘플 요청하는 교회에 보급 2. 약 600여 교회 및 기관에 재생종이 샘플 발송(2009년~2010년 누적)	10,000원

※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은 4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0년 기윤실 사역열매 보고에 추가 사업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 기본사업(회원확대 & 서비스 사업)

사업명	2010년도 진행상황	802,510원
온(溫)라인(line) 캠페인 (회원서비스 & 확대)	1. 만원의행복(후원증액캠페인) - 기간 : 2010년 4월~5월(총 8주간) - 참여결과 : 2사분기 증액 회원 11명 증액금액 월 217,000원 - 증액회원명단 : 김신욱 김인숙 김준영 류인복 문현미 박은애 송택호 오상덕 이철진 장춘복 최승원	802,510원
* 헌신회원 모임	1. 4월 모임 : 우창록 이사장 2. 5월 모임 : 김동호 공동대표 - 5/7(금) 오후6시30분, 회원 6명 참여	
월별 회원모임	1. 5월 모임(5/28금) - 기독교 윤리 실천의 한 방안으로 '윤리적 커피 마시기'를 제안하여 흥대 커피밀에서 윤선주 목사(커피밀 대표)와 3명의 참가자와 함께 윤리적 소비에 대하여 토론	

3. 협력사업

사업명	2010년도 진행상황	32,192,044원
* 2010 지방선거	1. 지방선거캠페인 "Talk, Pray, Vote" 진행 -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pray)한 후 투표(vote)에 참여해요 캠페인 진행 - Talk, Pray, Vote 전단지 3,000장을 제작, 배포 및 뉴조 온라인 캠페인 광고 2. 6.2 지방선거와 기독교 - 기독교유권자 자료집 제작 온라인 배포 - 이전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글과 선거 설교문을 편집 - 후원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배포	536,500원
비영리단체 회계투명성 지원	1. 비영리단체의 회계관련 멘토링을 위한 사업으로 25개 단체와 81명의 회계사 자원봉사자가 신청 2. 5월 협력단체 대표들과 비영리단체 회계사들이 함께 하는 협약식 진행 3. 주관단체 : 기윤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가이드스타, 한국공인회계사회	4,000원
긴급구호사업	1. 아이티 성금 16,547,960원 '한국교회 아이티 연합'에 전달 2. 후원 : 단체 12곳 개인 70명	15,778,910원
목회자 리더십교육	1. 3기 신뢰받는 목회자를 위한 7가지습관 워크숍(16명 참가) - 일시/장소 : 3월8일(월)~10일(수) / 서대문교회 2. 1기 코칭클리닉 목회자과정(14명 참가) - 일시/장소 : 5월3일(월)~4일(화) / 흥광교회 3. 1기 창의적교수법 목회자과정(13명 참가) - 일시/장소 : 5월31일(월)~6월1일(화) / 흥광교회	39,200원
기윤실 네트워크	1. 1차 모임 : 6월11일(금) / 대전기윤실 - 전국기윤실의 협력을 위해 다음 사항을 논의함 ①모임 정례화(격월) ②서울소식지에 지역소식게재 ③연간 공동사업 기획(2011년부터) 2. 2차 모임 : 10월21일(목) / 서울기윤실 3. 3차 모임 : 11월11일(목) / 부산기윤실	334,930원
* 연대운동	1. 씨드스쿨 : 덕양중(21명), 모현중(21명), 대광중(14명), 정의여중(6명) 2. 성서한국 : 집행위원 2011년 전국대회 준비위원 3기 TFT 위원 활동 3.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2010 교회재정 세미나 "회의의 정석" 4. 동역과공감네트워크 : 팀목회와 팀사역을 위한 실무연수 교육	15,498,504원

4. R&D 사업

사업명	2010년도 진행상황	25,180,070원
* 아기와 함께 가는 교회	1. 교회 탐방 진행(강남교회, 내수동교회, 새문안교회) 2. 포럼진행 - 일시/장소 : 6월17일(목) 10시30분 / 청어람 - 주제발제 : 김은혜 교수(장신대) - 사례발표 : 내수동교회, 새문안교회 3. 이번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아기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아기를 돌봐주고 좋은 호응을 얻음	615,840원
*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1. 책임연구원 : 김병연 교수 2. 검토위원회 : 신창운 기자(중앙일보 여론조사전문), 임성빈 교수, 조성돈 교수, 황호찬 교수 3. 여론조사 : 2010년 11월8일~10일 4.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 일시/장소 : 12월15일(수) 오후2시 / 청어람 - 발제 : 김병연 교수,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 지용근 대표(GH코리아)	16,964,750원
* 브랜드 컨설팅	1. 핵심리더십 인터뷰 - 기윤실 브랜드 컨설팅을 위해 핵심리더십 10인의 질의를 정리하여 기윤실 미션과 핵심가치를 정리, 기윤실 운동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 일정 : 5/26(임성빈) 5/27(손봉호, 우창록) 6/4(백종국) 6/9(이동원, 강영안) 6/23(김동호) - 서면질의 : 주광순, 양세진, 박은조(진행중) - 결과발표 : 7월 19일 이사회	3,748,110원
목회자성윤리 포럼	1.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 일시/장소 : 12월20일(월) 오후3시 / 청어람 - 공동주최 :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 인사말 : 이동원 목사 - 발제 : 박성자 소장(기독교여성상담소), 박종운 변호사(기독교법률가회), 김승호 교수(영남신대), 홍인중 교수(장신대)	482,140원
기윤실 도서발간	1. 기윤실 비전레터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 저자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우창록 외 33인)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 발간 : 2010년 2월 22일 2. 성서적 정치실천 - 저자 : 기윤실 삶의정차윤리운동본부(김선욱 외 6인) - 필진 : 김선욱, 김회권, 민종기, 박득훈, 박성원, 유경동, 조현 - 출판사 : 프리칭아카데미 - 발간 : 2010년 12월 28일 3.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 저자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노영상 외 12인) - 필진 : 송해룡, 강진구, 김호경, 배정훈, 소기천, 정원범, 박성관, 김진, 박종운, 장헌일, 곽재욱, 이상억, 노영상(목차순)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 발간 : 2011년 3월 하순 예정	3,369,230원



가립회계법인 GARIB & COMPANY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 영풍빌딩 7층 [135-749]
T[02]501-1202 F[02]552-1272 www.garib.co.kr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 사 회 귀 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10년 12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수지결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법인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10년 12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법인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박 개 성



2011년 1월 1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1년 1월 18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기윤실은 재정투명성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제20기 2010년12월31일 현재

제19기 2009년12월31일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과목	20기(2010년)		19기(2009년)	
	금	액	금	액
I. 자산				
1. 유동자산		106,478,103		91,861,353
가. 당좌자산		106,478,103		91,861,353
(1) 현금		457,630		1,082,370
(2) 예금		104,224,223		87,557,533
(3) 선급금		1,627,910		2,633,050
(4) 선납세금		168,340		588,400
2. 고정자산		59,146,693		115,760,610
가. 사용계약자산		46,847,366		45,415,790
(1) 기본금적립금		46,547,366		45,115,790
(2) 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나. 유형자산		12,299,327		70,344,820
(1) 차량운반구	6,000,000		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40,000)	2,960,000	-	6,000,000
(2) 비품	27,052,460		64,344,820	
감가상각누계액	(17,713,133)	9,339,327	-	64,344,820
자 산 총 계		165,624,796		207,621,963
II. 부채				
1. 유동부채		5,168,714		3,189,859
(1) 미지급금		96,520		465,932
(2) 예수금		5,072,194		2,723,927
2. 고정부채		1,775,652		6,545,176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775,652		6,545,176
부 채 총 계		6,944,366		9,735,035
III. 순자산				
1. 기본금(영구적계약)		45,000,000		45,000,000
(1) 설립기본금		45,000,000		45,000,000
2. 잉여금(무계약)		113,680,430		152,886,928
(1) 잉여차액		113,680,430		152,886,928
(순자산증감 당기 : (39,206,498) 전기: 37,267,264)				
순 자 산 총 계		158,680,430		197,886,928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165,624,796		207,621,963

운영성과표

제20기: 2010년01월0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제19기: 2009년01월0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2010년	2009년	계정과목	2010년	2009년	계정과목	2010년	2009년
I. 사업수익	393,459,960	465,012,600	I. 사업비용	353,597,180	428,957,332			
1. 회비	146,857,000	162,237,800	1. 인건비	70,835,449	51,618,704			
(1)회원회비	108,274,000	110,067,000	(1)급여및상여	43,591,820	42,487,500			
(2)이사회비	23,370,000	31,258,800	(2)협동간사사례비	20,602,870	-			
(3)지역회비	15,213,000	20,912,000	(3)퇴직급여	6,640,759	9,131,204			
2. 일반후원금	162,415,000	277,574,800	2. 사무관리비	65,671,139	57,543,175			
(1)교회기관후원금	162,415,000	277,574,800	(1)통신비	2,637,890	2,880,520			
3. 특정후원금	60,492,960	14,200,000	(2)교통비	905,400	1,601,080			
(1)목적후원금	44,010,000	14,200,000	(3)사무용품비	-	29,000			
(2)지원후원금	16,482,960		(4)소모품비	1,703,790	1,572,247			
4. 사업수입	23,695,000	11,000,000	(5)사무인쇄비	1,704,000	2,811,836			
(1)사업후원금	18,400,000	9,300,000	(6)보험료	726,620	644,860			
(2)등록비	5,280,000	1,700,000	(7)지급수수료	2,757,163	2,705,739			
(3)자료판매비	15,000	-	(8)제세공과금	161,820	277,300			
II. 사업외수익	10,703,925	10,526,494	(9)수도광열비	2,471,807	1,735,200			
(1)이자수익	1,775,652	6,545,176	(10)지급임차료	17,880,000	15,840,000			
(2)자료판매비	-	443,000	(11)발송비	2,136,580	1,759,990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	6,545,176	3,043,601	(12)복리후생비	20,802,868	14,788,540			
(4)잡수입	2,383,097	494,717	(13)광고선전비	-	330,000			
			(14)봉사자관리비	-	937,100			
			(15)활동비	2,098,615	-			
			(16)유지보수비	3,964,640	9,329,170			
			(17)잡비	1,239,530	300,593			
			(18)감가상각비	4,480,416	-			
			3. 사업비	217,090,592	319,795,453			
			가.사업인건비	97,926,531	140,776,286			
			나.사업행사비	76,099,561	114,616,130			
			(1)회의비	4,692,390	12,029,233			
			(2)행사비	51,185,868	80,123,807			
			(3)교육행사비	12,553,453	12,966,440			
			(4)회원사업비	3,137,850	409,900			
			(5)모금행사비	-	248,930			
			(6)대외행사분담금	4,530,000	8,837,820			
			다.홍보사업비	21,759,730	30,009,417			
			(1)소식지	6,343,320	6,309,407			
			(2)웹운영비	774,720	9,581,560			
			(3)도서자료제작비	-	923,600			
			(4)홍보물제작비	9,851,080	6,447,850			
			(5)홍보비	1,042,500	855,000			
			(6)브랜드컨설팅	3,748,110	5,892,000			

※ 본 운영성과표는
 가립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검증된 데이터를 일부 요약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등록데스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2010년	2009년	계정과목	2010년	2009년	계정과목	2010년	2009년
			라.교육훈련비	2,956,280	7,429,400			
			(1)간사훈련비	1,995,000	5,586,990			
			(2)자료구입비	961,280	1,842,410			
			마.지역사업비	18,348,490	26,964,220			
			(1)지역간사지원금	2,404,480	5,465,900			
			(2)지역사업비	644,450	169,820			
			(3)지역지원금	15,299,560	21,328,500			
			Ⅱ 사업외비용	89,773,203	9,314,498			
			(1)기부금	15,778,910	100,000			
			(2)유형자산처분손실	36,166,100	1,700,340			
			(3)고유목적사업준비 금전입	1,775,652	6,545,176			
			(4)전기오류수정손실	16,272,717	-			
			(5)타기관전출금	19,779,824	-			
			(6)잡지출	-	968,982			
수 입 합 계	404,163,885	475,539,094	지 출 합 계	443,370,383	438,271,830			
당기순자산의증(감)			당기순자산의증(감)	(39,206,498)	37,267,264			

• 운영성과표 내역 설명

① 2010년 운영성과표에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2010년 8월부터 회계상에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행 관계로 수입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까지 기윤실 회계에 잡혀 있어,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회계내역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는 수입/지출 모두 별도 회계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운영성과표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내역은 사업수익 58,210,000원, 사업외수익 22,054원, 사업비용 49,689,423원, 사업외비용 18,268,124원입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내역을 제외한 기윤실 운영성과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2010년	계정과목	2010년	계정과목	2010년	계정과목	2010년
I. 사업수익	335,249,960	I. 사업비용	303,907,757				
Ⅱ. 사업외수익	10,681,871	Ⅱ. 사업외비용	71,505,079				
수 입 합 계	345,931,831	지 출 합 계	375,412,836				
당기순자산의증(감)		당기순자산의증(감)	(29,481,005)				

② 운영성과표에서는 단기순자산이 3천9백여만원(39,206,498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것은 2010년 처음으로 실시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천2백여만원(내용연수 5년 이상인 것은 현재 파악되는 비품을 제외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잡아 3천6백여만원, 내용연수 5년 이하인 것은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잡아 1천6백여만원 비용지출 처리)과 기윤실 회계에 잡혀 있던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재정 1천8백여만원을 전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것들을 제외하면 실제 2010년 단기순자산은 약 3천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③ 2010년 기윤실 월 정기후원은 2,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개인후원과 기관(교회)후원 비율이 반반정도로 비슷한 현황입니다.

2010년 후원기명단

※ 2010년 기윤실 1회 이상 후원해 주신 개인 및 단체 명단입니다.(서울기준) 감사합니다.

1. 개인(847명)

강대용 강대현 강동수 강명길 강병관 강승철 강신원 강영수 강영실 강영안 강윤정 강은경 강은영 강일구 강진호 강준근 강춘래 강현아 강현주 강형구 강호인 강홍구 강홍준 강희철 고선옥 고승표 고영준 고은상 고정환 고지아 공미자 곽한영 구능희 구예리 권근엽 권대식 권명희 권민규 권오용 권오재 권용태 권장희 권진령 권태현 권택성 기세충 기용서 기진호 김가현 김경손 김경래 김경미A 김경미B 김경선 김경숙 김경천 김경호 김계홍 김광은 김광환 김구 김규성 김기섭 김기현 김기협 김나선 김남기 김달수 김대만 김대인 김대준 김덕기 김동석 김동호 김두희 김령희 김말순 김명금 김명찬 김문정 김미령 김미숙 김미혜 김민규 김민속 김민영 김병익 김병식 김병만 김병일 김사무엘 김삼수 김상범 김상수 김상윤 김상은 김상훈 김성한 김상환 김석돈 김선옥 김선희 김성근 김성길 김성득 김성상 김성수 김성심 김성열 김성천 김성철 김성태 김성필 김성현 김성호 김세진 김소희 김수자 김수정 김수현 김승일 김승환 김승호 김승희 김신근 김신옥 김신형 김애실 김양미 김양현 김연수A 김연수B 김연천 김연호 김영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A 김영철B 김예운 김옥전 김요열 김요미 김우정 김욱 김원섭 김유숙 김윤수 김은수 김은영 김은이 김은지 김은혜 김은희 김이수 김익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일수 김재균 김재원A 김재원B 김재홍 김재환 김정린 김정섭 김정욱 김정욱 김정웅 김정현 김정훈 김종민 김종필 김중호 김주영 김주원 김주일 김주현 김준영 김준철 김준희 김지숙 김지영 김지태 김지형 김진석 김진우 김진표 김진필 김진희 김창섭 김철준 김춘근 김충환 김태환 김태훈A 김태훈B 김하영 김학동 김하나 김한성 김해자 김현진 김현태 김현희 김형중 김혜경A 김혜경B 김혜창 김호경 김홍섭 김홍주 김홍환 김효민 김효상 김희경 김희숙 김희정 김희철 나영식 나영재 나현집 남경자 남궁설 남대일 남동익 남영란 남은찬 남재환 남준일 남태일 노광섭 노대웅 노성순 노승아 도중수 라창호 류기성 류인복 류종우 명호중 문경민 문경환 문규 문덕암 문석윤 문애정 문정옥 문춘식 문학준 문현미 문현주 박경만 박경순 박경춘 박경희 박기업 박대형 박대호 박동민 박득훈 박명근 박명배 박명섭 박문규 박미정 박민선 박범기 박병주 박복애 박봉순 박상규 박상돈 박상홍 박상희 박서현 박석호 박석화 박성진 박세진 박수정 박승민 박영범 박영애 박영진 박예함 박용서 박유정 박윤배 박윤정 박은미 박은애 박은지 박은하 박인애 박인자 박일화 박재규 박재완 박재장 박재현 박재형 박재호 박정민 박정임 박재우 박중구 박중은 박중원 박중진 박주현 박준동 박지연 박지영 박창균 박철 박철규 박철원 박춘희 박태순 박태영 박택규 박판근 박한옥 박혜경 박훈승 방순영 배기홍 배복희 배재수 배정주 배정호 배준완 배진성 백경원 백기숙 백영희 백상인 백세종 백영숙 백요한 백인남 백지열 백현주 백혜림 범학식 변철석 변현정 변화순 변희중 서단비 서동진 서동천 서순오 서유미 서일향 서임선 서중오 서체란 서태원 서헌희 서화연 서효정 석미경 성연상 성우경 소은중 손교식 손기식 손덕순 손만호 손봉호 손부영 손상문 손상일 손영걸 손영일 손용기 손원일 손유정 손은숙 손은순 손은정 손종호 손주의 손창우 손현화 손화철 송미옥 송병문 송복순 송성현 송시섭 송인수 송인호 송재기 송종영 송준인 송철학 송태현 송택호 송형록 신국원 신대희 신동립 신동식 신동일 신동필 신명호 신상린 신소영 신수현 신우철 신원하 신은정A 신은정B 신전수 신종현 신평은 신희교 신희선 심대진 심재용 안광래 안병지 안상현 안선옥 안신길 안연희 안정신 안정은 안철우 안춘명 양경림 양낙홍 양병이 양세진 양신근 양정민 양정석 양지혜 양태흠 양홍걸 엄기원 엄용환 엄현식 여신은 연미영 오갑석 오덕수 오동춘 오동훈 오명현 오상덕 오성만 오세란 오영임 오은석 오재은 오창섭 오혁진 옥성일 우창록 원영대 원용삼 원종민 원철 원호용 유건호 유미정 유성오 유소숙 유영신 유영준 유원욱 유은상 유인기 유재균 유정윤 유종우 유지성 유창수 유해무 유해신 유현숙 유혜경 유혜원A 유혜원B 유희경 윤나래 윤나리 윤미정 윤민영 윤선현 윤성우 윤성웅 윤소영 윤양숙 윤여송 윤영관 윤영식 윤영휘 윤철중 윤치호 윤태호 윤해균 윤혁경 윤형주 은현희 이건 이경옥 이경재 이경진 이경화 이계형 이국운 이근무 이금노 이금아 이기선 이기웅 이길승 이남경 이도홍 이동철 이동혁 이만열 이명자 이문규 이방욱 이범석 이병삼 이병환 이봉원 이상규 이상민 이상복 이상진A 이상진B 이상철 이상현 이석형 이선희 이성민 이성재 이성진 이성호 이성훈 이수경 이수룡 이수진 이수환 이순자 이순희 이슬이 이승구 이승원 이승철 이신복 이신실 이영분 이영수 이영용 이영주 이윅희 이윤아 이윤천 이윤훈A 이윤훈B 이우근 이우길 이원근 이원애 이원영 이유민 이윤락 이윤정 이윤현 이윅희 이은미 이은섭 이은숙 이은자 이의용 이인영 이장규 이재문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선 이정옥 이정은 이정훈 이정희A 이정희B 이종설 이종숙 이종혁 이주영 이준균 이준원 이준형 이진숙 이진영 이진형 이찬호 이창미 이창산 이창직 이창호 이철수 이철진 이춘화 이춘자 이춘학 이태희 이필성 이해영 이해재 이현도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호식 이화숙 이화영 이훈배 이희석 이희열 인훈 임성빈 임영택 임일택 임장수 임장우 임종록 임종호 임지용 임태규 임현숙 임혜정 임희옥 장관 장금녀 장기화 장민 장병조 장상진 장선화 장성록 장연순 장영순 장윤정 장은림 장익 장주연 장준혁 장지인 장춘복 장혜경 전병선 전병화 전선영 전장덕 전재중 전종갑 전진우 전태수 전희숙 정광제 정규장 정금영 정명숙 정명혜 정문희 정미옥 정민경 정병선 정병오 정병화 정부영 정선우 정성진 정세열 정수덕 정애리 정애주 정연실 정연희 정영미 정영호 정영훈 정영호 정영복 정운채 정유선 정유진A 정유진B 정은영 정은주 정은창 정익수 정인에 정일용 정재숙 정준 정지연 정진옥 정철도 정철모 정철민 정한철 정현철 정혜숙 정화선 정효제 체천모 조경하 조규봉 조무성 조인국 조성산 조성연 조성태 조신광 조아라 조양태 조열제 조영근 조용진 조용환 조우철 조운 조윤행 조은경 조인재 조인형 조인호 조계호 조중호 조준호 조철현 조현 조현덕 조혜미 조홍식 주선경 지삼영 지상성 지연심 차성용 채혜성 채홍식 천경훈 천민우 최경구 최경석 최광사 최근영 최근희 최덕수 최삼옥 최상태 최성수 최성욱 최성환 최승원 최영석 최영애 최영호 최영희 최우석 최우승 최우권 최윤선 최용 최은정 최인영 최정윤 최정은 최정철 최종원 최중현 최지영 최지원 최지현 최지혜 최태연 최태영 최하은 최해홍 최해석 최혜원 최효운 최홍수 최희영 추진연 태원우 팽정호 하숙희 하우수 하재웅 하현주 한국희 한귀목 한기채 한동익 한동훈 한병선 한상호A 한상호B 한석환 한신영 한인에 한인철 한재량 한지연 한진영 한화영 함복식 허명산 허영진 허주희 홍관수 홍기룡 홍대식 홍만삼 홍병용 홍상희 홍선희 홍인기 홍인중 홍일선 홍정진 홍창진 황규민 황규산 황문용 황병일 황석주 황인창 황철진 황호찬

2. 단체(71개 교회/기관)

(주)마임 (주)소프트이천 강변교회 강북제일교회 경주교회 광주다일교회 군인살롱교회 군포사랑의교회 기독교경영연구원 법률가회 (CLF) 나눔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높은뜻정의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다우리교회 대주산업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 덕수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서장로교회 동탄동성교회 두레교회 마산재건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민들레교회 밀알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의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울교회 서울광명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7여전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진교회 세명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송실대학교 신반포교회 안암제일교회 언덕교회 언약교회 우리들교회 은평침례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샘병원 일산은혜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전주안디옥교회 조촌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지비전인 테내셔널 청량교회 한영교회 한영교회청년부 할렐루야교회 향상교회 화평교회

3. 기타 통계

• 개인후원자 변화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기후원자	852명(88%)	774명(84%)	729명(91%)	749명(88%)
비정기후원자	111명(12%)	148명(16%)	73명(9%)	98명(12%)
합	965명	922명	802명	847명

✓ 정기후원은 후원이 예측되는 CMS와 자동이체이며, 비정기후원은 계좌이체와 지로입니다.

• 후원 교회 기관 변화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교회	70개(88%)	63개(90%)	63개(86%)	58개(81%)
기관	10개(12%)	7개(10%)	10개(14%)	13개(19%)
합	80개	70개	73개	71개

• 요약 운영성과표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	406,984,196	537,383,024	384,769,102	475,539,094	404,163,885
지출	433,220,867	428,262,088	376,341,345	438,271,830	443,370,383
순자산의 증감	-26,236,671	109,120,936	8,427,757	37,267,274	-39,206,498

• 요약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산총계	96,389,700	175,909,901	186,799,252	207,621,963	165,624,796
유동자산	20,867,732	89,680,013	61,218,903	91,861,353	106,478,103
고정자산	75,521,968	86,229,888	125,580,349	115,760,610	59,146,693
부채총계	53,393,239	23,792,504	26,254,098	9,735,035	6,944,366
유동부채	31,761,112	1,095,041	3,210,497	3,189,859	5,168,714
고정부채	21,632,127	22,697,463	23,043,601	6,545,176	1,775,652
순자산총계	42,996,461	152,117,397	160,545,154	197,886,928	158,680,430
기본금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적립금	128,138,847	-	-	-	-
잉여금	-130,142,386	107,117,397	115,545,154	152,812,418	113,680,430

외부회계감사인의 건의사항

가림회계법인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표 및 수지결산서를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오니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법인')의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교육봉사단 구분관리(※ 협의하여 올 상반기안에 정리 예정)

2010년 8월부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회계단위는 비영리 임의 단체로 등록한 후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인에서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관련 예적금등을 전출한 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7월부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직원에 대한 급여가 법인에서 지급 처리되지 않고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자체자금에서 지급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발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납부 및 4대 보험 신고는 법인회계에서 통합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향후 법인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도 구분하여 관리하시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대한민국교육봉사단에서 취득신고 함으로써 회계구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 및 4대 보험 지급시 회계처리 수정(※ 건의사항 대로 수정분개를 반영)

현재 법인은 종업원 수 2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소득세 반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급여지급시(매월 28일)에 원천징수를 제외한 순액을 급여계정으로 처리하고 소득세 및 4대보험 지급시 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하반기 7월 ~ 12월분에 대한 소득세 및 12월분에 대한 4대보험료 만큼 급여 및 복리후생비가 과소계상되기 때문에 결산시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차) 급여 및 상여	대) 예수금
회사부담금	차)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금

3.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천징수(※ 1월부터 시행중)

현재 법인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전액을 회사 경비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바, 급여의 0.45%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의 대상기간 및 납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기간	납부일
제1기 1.1~3.31	3월 31일
제2기 4.1~6.30	5월 15일
제3기 7.1~9.30	8월 15일
제4기 10.1~12.31	11월 15일

4. 선급법인세 회계처리(※ 회계감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 중)

법인은 이자수익 수령시 법인세를 제외한 순액만을 기표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통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바, 기말에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 내역을 통보받아 선급법인세에 대한 수정분개를 하여야 합니다.

당기 수정분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선급법인세	168,340	대) 이자수익	168,340
----------	---------	---------	---------

2010년 내부 감사보고서

본 감사인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 년도의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회계 및 운영의 내부통제제도의 이행, 각종 규정의 정비 및 준수 등을 점검하여 전반적인 업무의 합리적인 수행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를 위하여 감사인은 내부 감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의 검토, 사무실의 방문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다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회계 및 운영의 내부통제, 규정의 정비 및 준수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1년 2월 8일

감사 황호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1. 장려 사항

가. 각종 사역의 기획, 진행, 평가 및 보고

기윤실은 2010년도에 다양한 사역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공청회의 개최를 통하여 대외적인 신인도를 증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역 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사역 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새로운 사역의 개발은 기윤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개선사항

가. 의사결정구조의 재검토(※ 새로운 상임집행위원회가 구성 된 후 신임이사장과 논의예정)

현재 기윤실의 제반 의사결정은 사무총장,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회, 이사회 등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관계로, 권한 및 책임이 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재정비를 제안합니다.

나. 각종 규정의 정비(※ 조직개편 논의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전결규정 보완 예정)

2010년도에 기윤실은 사무실 업무규정, 회계업무규정, 평가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총장, 공동대표, 이사장 등의 업무처리, 승인 및 전결 규정을 재정비하여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각종서류의 관리

모든 서류는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보관에 이르기까지 누락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외부 발송 공문의 경우 공문관리대장을 유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라. 예산 통제의 강화(※ 2011년 예산안 작성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예정)

현 기윤실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확정된 예산은 항목 별 총액에 대한 승인입니다. 한편 이를 집행할 때에는 지출에 앞서 예산항목의 분류는 정확한지, 지출예상금액은 확정된 예산총액의 범위에 있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실제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기윤실의 실무에서는 사후적인 결재가 사무총장으로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전에 예산통제 업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이사장의 결재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 초과의 지출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혹은 추경예산의 편성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 운영성과표의 비용명세서 작성(※ 올해부터 운영성과표 외 부속명세서로 사역별 비용명세서 작성 예정)

현재 기윤실은 운영성과표를 보고하고 있으나, 사역별 성과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역별 비용명세서의 작성을 권고합니다.

바. 윤리규정 보완(※ 추후 상임집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에 제정 준비)

현재 기윤실은 윤리규정이 부재하며, 업무 규정상에 일부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윤실 직원 및 기윤실 전체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관 개정안

• 산구 정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설 명
제3조(사명)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확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 으로 한다.	제3조(사명)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 으로 한다.	내용수정
제10조(총회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 및 지역네트워크 조직의 회원 으로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내용삭제
제20조(이사회임무) ⑥ 상임집행위원의 임면 ⑦ 사무총장 의 임면 ⑧ 사무처장과 본부장 의 임면	제20조(이사회임무) ⑥ 상임공동대표의 선출 ⑦ 상임집행위원의 임면 ⑧ 사무처(총)장과 운동본부장 의 임면	내용추가 내용수정
현 3절 이사회와 4절 상임집행위원회 사이에 4절로 신설 (공동대표 절)	제 4절 공동대표 제24조(공동대표) ①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하고, 당연직 상임집행위원이다. 제25조(상임공동대표) ① 공동대표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집행위원장을 겸직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상임집행위원을 추천하고, 상임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내용신설
제24조(상임집행위원회 구성) 이사장 , 공동대표, 운동본부장 및 이사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6조(상임집행위원회 구성) 공동대표, 운동본부장, 사무처(총)장 외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내용삭제 내용추가 내용수정
제26조(상임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은 이사장 이 맡는다.	제28조(상임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 가 맡는다.	내용수정
제27조(사무처) ③ 사무총장 은 사무처의 제반 활동을 주관하고, 기윤실 네트워크를 연결 조정한다. ④ 사무처장 은 사무총장 을 도와 사무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진행한다.	제29조(사무처) ③ 사무처(총)장 은 사무처의 제반 활동을 주관하고, 기윤실 네트워크를 연결 조정한다. ④ 사무국장 은 사무처(총)장 을 도와 사무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진행한다.	내용수정

제정: 1993년 2월
 1차 개정 : 1995년 3월
 2차 개정 : 2000년 7월 17일
 3차 개정 : 2005년 2월 21일
 4차 개정 : 2006년 2월 20일
 5차 개정 : 2007년 2월 26일
 6차 개정 : 2008년 2월 25일
 7차 개정 : 2009년 2월 16일
8차 개정 : 2011년 3월 7일

1. 개정 사유(정관표기는 개정안 기준)

- ① 운동방향과 사명의 연관성을 위해 내용 수정(정관3조)

사명	운동방향
정직한 그리스도인	정직윤리운동
신뢰받는 교회	교회신뢰운동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사회정치윤리운동

- ② 상임공동대표 제도 신설 및 공동대표 절의 내용신설(정관20조, 정관4절, 정관28조)
 ③ 그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정관에 별도의 역할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실제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같이 활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사무처(총)장으로 일원화(정관26조, 29조)

※ 개정안을 반영한 전체 정관안이 자료집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신임 임원 명단

◦ 이사장



이 동 원

- 기윤실 공동대표
-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레노바레 공동대표

◦ 공동대표



이 장 규

- 기윤실 이사
- 기윤실 창립발기인
-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전 재 중

- 기윤실 이사
-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 기독교법률가회 상임이사

◦ 이사



노 영 상

-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최 상 태

- 화평교회 담임목사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

연임 임원 명단

이름(소속)		임기 시작
공동대표	박은조(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2011년 3월
이 사	오정현(사랑의교회 담임목사)	2011년 3월

신임 상임집행위원 소개

이름(소속)	
자치모임 대표	이상원 신학위원회 위원장(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정병오 교사모임 전 대표(좋은교사운동 대표) 조흥식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무처장	조제호(기윤실 사무처장)

※ 상임집행위원/사무처장의 임면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임 임원 / 상임집행위원 명단

이름(소속)	
이 사 장	우창록(법무법인 울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강영안(서강대 철학과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이 사	김동호(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목사) 이우근(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상임집행 위 원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은혜(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양세진(사무총장)

※ 이사장과 공동대표 사임의 경우 이사직은 유지됩니다.

사임 / 신입 간사 명단

이름(소속)	
사 임	김효민 팀장(2010년 7월 사임) 윤나래 팀장(2010년 8월 사임) 전선영 팀장(2010년 10월 사임)
신 입	박제민 간사(2011년 2월 채용) 박진영 간사(2011년 2월 채용)

2011년도 사업계획안

1. 기윤실 운동방향과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일정

일 자	내 용	논 의	결 론
2010년 7월 19일 이사회	① 브랜드컨설팅 결과발표 ② 사무총장 사임	① 사무총장 후임 ② 의사결정구조 ③ 비전-미션 재정리	공동대표단에 논 의 위임
2010년 8월 27일 공동대표단	① 이사장 사임의사 ② 교회신뢰운동 분리 논의	① 이사장-사무총장 후임 ② 의사결정구조 ③ 교회신뢰운동 분리건	백종국 공동대표 를 간사로 하는 수임기구에 위임
2010년 11월 19일 내부간담회	① 백종국 공동대표에게 위임된 기 위한 기윤실 이사/본부장 대상의 내부간담회 개최. ② 기윤실 운동방향을 중심으로 논의	8월 27일 논의내용을 발전시키 기 위한	
2010년 11월 말 교회신뢰운동이 별도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			
2010년 12월 27일 상임집행위원회	11월 19일 내부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 올릴 운동방 향안과 조직개편 논의	① 운동방향안 ② 조직개편안	
2011년 2월 10일 이사회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논 의사항에 대해 총회에 올리기 전 이사회에서 논의	① 운동방향안 논의 ② 조직개편안 확정 (신임이사장, 공동대표, 상임집 행위원, 사무처장) ③ 운동방향과 조직개편에 따 른 정관개정	논의안건을 의결 하고, 2011년 사 업/예산안과 신 임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상집에 위임
2011년 2월 25일 상임집행위원회	2월 10일 이사회에서 위임된 3 가지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 교환	① 2011년 사업안 논의 ② 2011년 예산안 논의 ③ 신임 이사 추천 확정	
2011년 3월 2일 이사회	상집에서 의견교환한 2011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온라인회람		

2. 운동방향안

- ① 운동방향안의 핵심은 기윤실의 운동방향이 특정담론이나, 조직개편에 따라 자주 바뀌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② 크게 3가지 운동방향으로 정리했는데, “정직윤리운동”, “교회신뢰운동”, “사회정치윤리운동”입니다.
- ③ 또한, 운동방향과 사명과 연계성을 위해 사명을 수정하였습니다. 현 사명은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명	운동방향	설명
정직한 그리스도인	정직윤리운동	개인 및 교회/사회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촉구(성명서, 지침 등) 및 캠페인
신뢰받는 교회	교회신뢰운동	교회 내적으로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견지하게 하기 위한 대안마련과 외적으로는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세미나 및 매뉴얼 제공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사회정치 윤리운동	1차원 : 지역기윤실, 자매단체 2차원 : 기독교시민운동단체(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3차원 : 기독교와 사회와의 소통과 균형잡힌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변(기윤실 포털)

3. 조직개편안

- ①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현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정관대로 운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상임집행위원회가 갖고, 운동의 타당성 검토나 재정집행(후원)은 이사회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 ② 이를 위해 현재 상임집행위원장을 이사장이 맡고 있는데, 공동대표 중 상임공동대표를 한명 선출하여 상임공동대표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도록 합니다.
- ③ 아울러 네트워크운동 강화를 위해 기윤실 내부 자치모임인 교사모임, 사회복지위원회, 신학위원회의 대표 1인을 상임집행위원으로 임명하여 의사결정구조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2011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취지	예산
정직 윤리 운동 본부	1. 목회자 윤리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직과 윤리에 있어서 표지판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목회자의 윤리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목회자 윤리문제의 핵심은 목회현장에서 겪게 되는 성윤리, 경제윤리 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부재하다는데 있다. 또한, 목회자 윤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나 교단(노회/지방회)들이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보이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800만원
	2. 사회이슈등 실천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해 침묵하거나, 원인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운동을 전개한다. 사회이슈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운동 전개를 통해 기윤실 회원실천운동성을 강화한다. 	420만원
교회 신뢰 운동 본부	3. 깨끗한 교계선거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이어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공론화 되었던 교계 선거가 금권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과거 깨끗한 총회선거를 위한 운동(깨총)을 진행했던 기윤실이 교계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감시/감독하는 적극적인 운동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820만원
	4.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부터 진행중인 연속사업으로 올해 재생종이 사용운동은 재생종이 인증제도 도입 및 협약식을 통해 교회가 재생종이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도록 운동을 확산시킨다. 재생종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580만원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한국교회가 지역에 뿌린 내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자료보급을 전개한다. 이런 지역공동체운동은 교회사역의 새로운 장으로, 교회신뢰회복과 교회의 사회적책임에 기여할 것이다. 	800만원
사회 정치 윤리 운동 본부	6. 기윤실 포럼 - 싱크탱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은 무엇이고, 크리스천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대이다. 이런 사회정치윤리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 지성인 싱크탱크 구축을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사회정치윤리 이슈들을 분석하고 기윤실의 응답 또는 운동방향을 제시한다. 	1,000만원
	7. 기독교민 교육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민이 "성도로서의 시민, 시민으로서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청년대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980만원
	자치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위원회 : 9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신학위원회 : 목회자교육운동 콘텐츠 개발지원 교사모임 : 정직윤리운동 연대 	2,000만원
	사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부흥회(회원사업) 방문프로그램 : 기윤실 임원이 강사(설교자)로 교회순회 기윤실 네트워크 공동사업 협력운동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리더십교육, 씨드스쿨, 성서한국 ISO26000 연구모임 / 지속가능성보고서 회원총회 	1,600만원
총 사업비			9,000만원

※ 세부기획안은 번호가 매겨져 있는 1~7번 사업에 한해 보고하였습니다.

2011년 사업일정

사업명		3	4	5	6	7	8	9	10	11	12
정직윤리 운동본부	목회자윤리운동		☞	☞	☞	☞	☞	☞	☞		
	사회이슈실천운동	☞	☞	☞	☞		☞	☞	☞	☞	
교회신뢰 운동본부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	☞	☞	☞	☞	☞	☞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	☞	☞	☞	☞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		☞	☞			☞		
사회정치 윤리운동본부		☞	☞	☞			☞		☞		☞
자치기구	사회복지위원회		☞					☞			
	신학위원회		☞		☞	☞	☞				
	교사모임					☞	☞				
사무처	기독교시민교육운동		☞	☞	☞			☞	☞	☞	
	윤리부흥회			☞			☞			☞	
	교회방문프로그램		☞	☞	☞		☞	☞	☞	☞	☞
	기윤실네트워크 공동사업	☞		☞		☞		☞		☞	
	협력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리더십교육, 성서한국, 씨드스쿨	☞	☞	☞				☞	☞	☞	☞
	ISO26000 연구모임 지속가능성보고서		☞		☞		☞		☞		☞
	회원총회	☞									

1. 목회자윤리운동

취지

1. 정직과 윤리에 있어서 표지판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목회자의 윤리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최근 불거지고 있는 목회자 윤리문제의 핵심은 목회현장에서 겪게 되는 성윤리, 경제윤리 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부재하다는데 있다.
3. 또한, 목회자 윤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나 교단(노회/지방회)들이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보이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내용

1. 목회자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신학위원회와 협력)
 - 올해는 다양한 목회자 윤리이슈에 대한 특강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주제별로 세부 교재를 개발한다.
 - 통합 교재 또는 커리큘럼 교육, 특강 등 다양한 포맷으로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2. 신대원 커리큘럼 또는 각 노회(지방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재교육에 윤리교육이 강화되도록 요청한다.
3. 교단별 목회자윤리문제 처리현황 조사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목회자윤리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한다.
4.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각 교단이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콘텐츠 개발회의 및 개발	●	●	●	●	●					
목회자윤리교육 강화요구 캠페인					●	●	●			
교단별 목회자윤리문제 처리현황조사			●	●	●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	●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80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50만원	5회 × 10만원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50만원	
강사비(원고비 등)	200만원	10명 × 20만원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200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300만원	

열매(기대효과)

1. 목회자 윤리문제를 개인 목회자의 윤리의식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교단(신대원)이 나서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2. 목회자윤리운동을 통해 교회 내 자정운동을 일으킨다.

2. 사회이슈 실천운동

취지

1.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해 침묵하거나, 원인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운동을 전개한다.
2. 사회이슈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운동 전개를 통해 기윤실 회원실천운동성을 강화한다.

내용

1. 전(월)세 값 동결/인하 운동
 -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 전(월)세 값을 동결 내지 인하시겠습니다.
 - 전세대란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연속 기고글
 - 전세대란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
 - 장기적으로는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부동산양극화에 대한 활동 전개 논의
2. 기윤실 포럼과 연계하여 연중 이슈 실천운동 전개(장/단기)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세 값 동결/인하운동 서명운동	●	●	●	●						
전(월)세 값 동결/인하운동 긴급포럼	●									
연중 이슈 실천운동 캠페인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42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0만원	기윤실포럼 사업 회의비와 연계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90만원	3회 × 30만원
강사비(원고비 등)	90만원	9회 × 10만원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90만원	3회 × 30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150만원	3회 × 50만원

열매(기대효과)

1.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실천운동 제안을 통한 기윤실 회원실천운동 강화
2. 사회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조

3.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취지

1.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이어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공론화 되었듯, 교계 선거가 금권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2. 과거 깨끗한 총회선거를 위한 운동(깨총)을 진행했던 기운실이 교계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감시/감독하는 적극적인 운동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내용

1.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독교인 네트워크 활동 : 한기총 금권선거 폭로전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 개혁(해체)을 위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2.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협의회 구성 : 기존 교단총회 논의안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
3.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 각 교단총회에 맞춰, 깨끗한 선거를 위한 호소문 발표 및 주요교단 총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깨끗한 선거를 위한 협약식 제안 및 감시운동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기총 개혁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	●	●	●	●	●	●	●		
협의회 구성		●	●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	●	●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82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50만원	5회 × 10만원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150만원	3회 × 50만원
강사비(원고비 등)	120만원	8명 × 15만원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200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300만원	인턴간사비, 캠페인비 등

열매(기대효과)

1. 교계선거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교회신뢰증진 기여
2. 상식적, 민주적 총회 전통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참여적 가능성을 열어 총회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을 일깨운다.

4.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취지

1. 2009년부터 진행중인 연속사업으로 올해 재생종이 사용운동은 재생종이 인증제도 도입 및 협약식을 통해 교회가 재생종이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도록 운동을 확산시킨다.
2. 재생종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내용

1. 교회의 재생종이 사용 실태조사 및 모범적인 재생종이 사용 교회 발굴 소개
 - 교회 규모별/지역별로 100개 교회를 선정 재생종이 사용 실태를 조사
2. 재생종이 인증제도 도입 및 협약식 추진
 - 교회단위로는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노회(지방회) 차원에서는 협약식을 추진한다.
3. 재생종이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4. 재생종이 가이드북 제작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생종이 사용 교회 조사	●	●	●							
인증제도 도입 및 협약식		●	●	●	●	●	●	●	●	
재생종이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		
재생종이 가이드북 제작								●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58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30만원	회의 및 자료구입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150만원	로고디자인 등
강사비(원고비 등)	100만원	가이드북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100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200만원	협약식 10회 × 15만원 + 캠페인 등

열매(기대효과)

1. 한국교회가 익숙한 것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2.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취지

1.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한국교회가 지역에 뿌린 내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자료보급을 전개한다.
2. 이런 지역공동체운동은 교회사역의 새로운 장으로, 교회신뢰회복과 교회의 사회적책임에 기여할 것이다.

내용

1. 연중 연계프로그램으로 포럼과 현장탐방,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전체 일정 이수 시 수료증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주관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과 연계한다.
2. 포럼 : 1일 과정으로 4개의 강좌로 구성
 - 강좌주제 : 지역공동체운동의 필요성, 교회와 지역공동체 세우기,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사례, 해외에서 배우는 지역운동사례 등
3. 현장탐방 : 모범적인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나눠 탐방한다.
4. 워크숍 : 1일 과정으로 참가자 교회에 적용가능한 워크숍 진행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포럼		●								
현장탐방				●						
워크숍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80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30만원	3회 × 10만원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60만원	
강사비(원고비 등)	160만원	4명 × 2회 × 20만원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150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400만원	탐방 2회 × 100만원 등

열매(기대효과)

1.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지역운동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지역에서 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한다.
3. 지역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6. 기윤실 포럼

기독교 사회정치윤리운동 싱크탱크

취지

1.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은 무엇이고, 크리스천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대이다.
2. 이런 사회정치윤리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 지성인 싱크탱크 구축을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사회적 윤리 이슈들을 분석하고 기윤실의 응답 또는 운동방향을 제시한다.

내용

1. 싱크탱크 구성
 - 기존 기윤실 자매단체 또는 협력단체들과 유기적인 이슈별 연대를 토대로 구축
2. 정기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기윤실 포럼 또는 손봉호 포럼
3. 정기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토대로 분야별 공동연구물 제작 및 온라인 기윤실 포털을 통해 배포 : <성서적 정치실천>(근간), <성서적 문화실천>, <성서적 사회실천> 등
4. 정기 세미나 및 심포지엄 내용 중 이슈에 따라 정직윤리운동본부의 "사회이슈실천운동"으로 확대 진행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싱크탱크 구축		●	●							
정기 세미나(심포지엄)				●		●		●		●
기윤실 포털구축		●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1,00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60만원	6회 × 10만원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100만원	4회 × 25만원
강사비(원고비 등)	160만원	2명 × 4회 × 20만원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320만원	4회 × 80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360만원	4회 × 40만원 + 기윤실 포털구축

열매(기대효과)

1.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 제시
2. 정기적인 포럼 결과물 온/오프라인 배포

7. 기독교시민 교육운동(청년운동)

취지

1. 기독교시민이 "성도로서의 시민, 시민으로서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2. 청년대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내용

1. NGO아카데미 : 복음주의 기독교시민운동의 모태인 기윤실이 추천하는 5주 과정의 아카데미로 모집을 통해 진행.
2. 기독교시민아카데미(30일여정) : 기윤실 핵심가치(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를 기초로 5주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회(이사/후원교회를 중심으로)를 기반으로 진행
3. 청년포럼 :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시민의 사회적책임과 사회적이슈에 대한 바른 시각을 제공한다. - 기윤실 포럼과 연계해서 진행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NGO 아카데미		●	●					●	●	
기독교시민아카데미(30일여정)				●						●
청년포럼(기윤실포럼)		●		●		●		●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98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30만원	3회 × 10만원
홍보비(제작비, 광고비, 발송비 등)	150만원	5회 × 30만원
강사비(원고비 등)	400만원	5명 × 4회 × 20만원
인쇄비(제작비, 발송비, 복사비 등)	200만원	4회 × 50만원
진행비(대관비, 간식비, 단기인건비 등)	200만원	4회 × 50만원

열매(기대효과)

1. 기윤실만의 강점을 살리는 프로그램의 진행
2. 기윤실 청년회원을 확보하여, 청년운동의 기틀을 마련

제9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1. 취지

교회는 지역 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기윤실에서는 교회 시설이 지역 주민을 위해 널리 개방되고, 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 본상을 제정하였다. 이 상을 통해 공개되어지는 자료와 프로그램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매김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2. 활동내역

- 응모 자격 :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 있는 모든 교회
- 시상 내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특수사역 4개 분야 - 총 10교회
- 시 상 품 : 교회사회복지 지원금 100만원, 기념동판, 상패
- 주 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 후 원 : 소망회장품

3. 심사위원구성

- 1) 심사위원 - 사회복지위원 3명, 목회자 2명
- 2) 명예 심사위원 - 교단 사회복지 관련 부서 담당자

4. 심사기준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시설의 개방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교회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평가방법의 활용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 목회자의 교회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5. 제9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일정(안)

일시	내용	비고
5/31	준비회의, 명예심사위원 위촉식	
6/1 ~ 7/15	홍보 및 신청접수	
7/18 ~ 8/12	최종 심사 및 결정	
9/6	교회상 시상식	

2011년 예산안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2011년	계정과목	2011년	비고
I. 사업수익	304,500,000	I. 사업비용	307,000,000	
1. 회비	148,000,000	1. 인건비	120,600,000	
(1)회원회비	110,000,000	(1)급여및상여	83,600,000	
(2)이사회비	20,000,000	(2)협동간사사례비	24,000,000	
(3)지역회비	18,000,000	(3)퇴직급여	6,500,000	
2. 일반후원금	130,000,000	(4)4대보험	6,500,000	
(1)교회기관후원금	130,000,000	2. 사무관리비	53,800,000	
3. 특정후원금	20,000,000	(1)통신비	2,800,000	
(1)목적후원금	20,000,000	(2)교통비	1,500,000	
4. 사업수입	6,500,000	(3)소모품비	1,500,000	
(1)사업후원금	1,000,000	(4)사무인쇄비	1,600,000	
(2)등록비	5,000,000	(5)보험료	700,000	자동차보험료
(3)자료판매비	500,000	(6)지급수수료	2,700,000	CMS, 이체 수수료 등
II. 사업외수익	5,500,000	(7)제세공과금	220,000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8)수도광열비	2,300,000	
		(9)지급임차료	17,880,000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10)발송비	2,000,000	
		(11)복리후생비	4,000,000	
		(12)활동비	2,000,000	
		(13)유지보수비	7,000,000	회계/업무감사비, 회계프로그램 등
		(14)잡비	1,000,000	
		(16)회의비	3,000,000	이사, 상집, 간사 회의
		(17)교육훈련비	3,600,000	교육 연수, 도서구입
		3. 사업비	132,600,000	
		가.사업행사비	90,000,000	
		(1)회의비	2,500,000	기획비 등
		(2)홍보비	9,500,000	제작비, 광고비, 발송비 등
		(3)강사비	13,300,000	원고비 등
		(4)인쇄비	14,600,000	제작비, 발송비, 복사비 등
		(5)진행비	23,100,000	대관비, 간식비, 단기인건비 등
		(6)협력사업비	7,000,000	대외분담금 포함
		(7)목적사업비	20,000,000	사회복지위원회
		나.홍보사업비	16,000,000	
		(1)소식지	6,000,000	5회
		(2)웹운영비	3,000,000	
		(3)도서자료제작비	3,000,000	
		(4)홍보물제작비	4,000,000	
		다.지역사업비	26,600,000	
		(1)지역간사지원금	5,600,000	
		(2)지역행사비	3,000,000	
		(3)지역회비지원금	18,000,000	
		II. 사업외비용	3,000,000	
총계	310,000,000	총계	310,000,000	

2011년 예산안 해설

1.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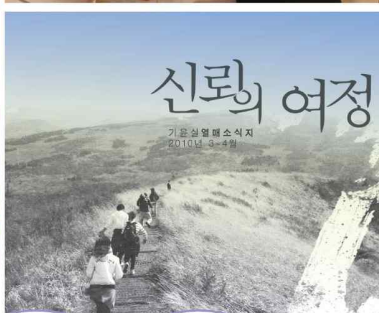
- ① 작년까지 매년 회계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이 기윤실은 예산편성 시 결산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결산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② 예결산의 편차가 심했던 **원인 중 하나는 계정과목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회계입력 시 계정과목 입력을 임의로 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 ③ 또한, 사무관리비와 사업비 항목의 **계정과목들이 섞여 있으면서 명확한 회계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 ④ 2011년 예산안의 경우 이런 계정과목의 혼란과 오류를 바로 잡거나, 새로 설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출부분의 경우 2010년 결산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 ⑤ 지출부분의 경우 금액이 크거나, 계정과목명으로는 어떤 내역인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해설을 달았습니다.

2. 수입

- ① 회계감사를 받은 최종 운영성과표 상으로는 **수입이 4억여만원(404,163,885원)**이지만, 2010년도 회계에 합산되어 있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수입인 5천 8백여만원(58,232,054원)**을 제외하면 **실제 2010년도 기윤실 수입은 3억 4천여만원(345,931,831)**입니다.
- ② 올해 수입은 작년 월 200만원씩 후원하던 높은뜻정의교회 후원이 중단되었고, 고액 후원교회 중 감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현재 후원구조를 기준으로 긴축으로 편성하여** 3억 1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③ 목적후원금 2천만원은 올해부터 사회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이 기윤실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교회상을 목적으로 후원하는 소망화장품 후원금입니다.

3. 지출

- ① 앞서 설명드린 2011년 예상 수입액 3억 1천만원을 기초로 지출내역을 편성하였습니다.
- ② 올해 계정과목이 변경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가 기본인건비와 사업인건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인건비 항목으로 통합시켰습니다.
 - 사무관리비 항목의 (11)후생복지비에 합쳐져 있던 4대보험을 인건비 항목의 (4)4대보험 계정으로 분리시켰습니다.
 - 회의비의 경우 사무회의와 사업회의가 구분되지 않은 채 합쳐져 있던 것을 분리시켰습니다.
 - (17)교육훈련비의 경우 사업비 항목에 있었는데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 ③ 인건비 항목 : 올해 인건비는 정간사 4명과 협동간사 3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④ 사무관리비 항목 : (13)유지보수비 계정에는 외부회계감사와 업무감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사업비 항목
 - 2페이지의 사업개요에서 부가설명되어 있는 예산합이 사업비 항목의 가사업행사비 내역과 일치하도록 편성했습니다.(9천만원)
 - 추후 2011년 결산 시 9천만원의 사업이 어떤 사업들에 지출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역열매보고

2010

기윤실 신뢰나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 Extra Miles Movement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마5:41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 차

○ 2010년 기윤실 주요사업 선정절차 -----	45
1.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46
컨퍼런스 비전나눔 요약	
프로그램 일정 요약	
참가자 통계/평가	
2. <u>기독교시민교육프로그램</u> -----	50
미셔널혁신독서클럽 후기	
참가자 인터뷰 : 백요한 회원	
3. 365 말씀과실천 캘린더 -----	53
4. ISO26000 교회표준 개발 -----	54
ISO26000이란? "ISO26000, 너의 정체를 밝힌다!"	
ISO26000을 교회에 적용할 때의 7대 이슈별 주요 측면들	
5.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58
아카데미 후기 : 배영오 전도사	
6.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	60
7.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	64
8. 지방선거 캠페인 "Talk, Pray, Vote!" -----	68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pray)한 후, 투표(vote)에 참여해요~	
9. 아기와 함께 가고싶은 교회운동 -----	71
아기와 함께 가고싶은 교회 캠페인	
저출산시대와 예배공동체	
10. 대한민국교육봉사단 - 씨드스쿨 -----	74
씨드스쿨 T(교사) 참여 후기	
11. 회원운동 / 브랜드컨설팅 -----	76
○ 2009년도 기윤실 사역일정표 -----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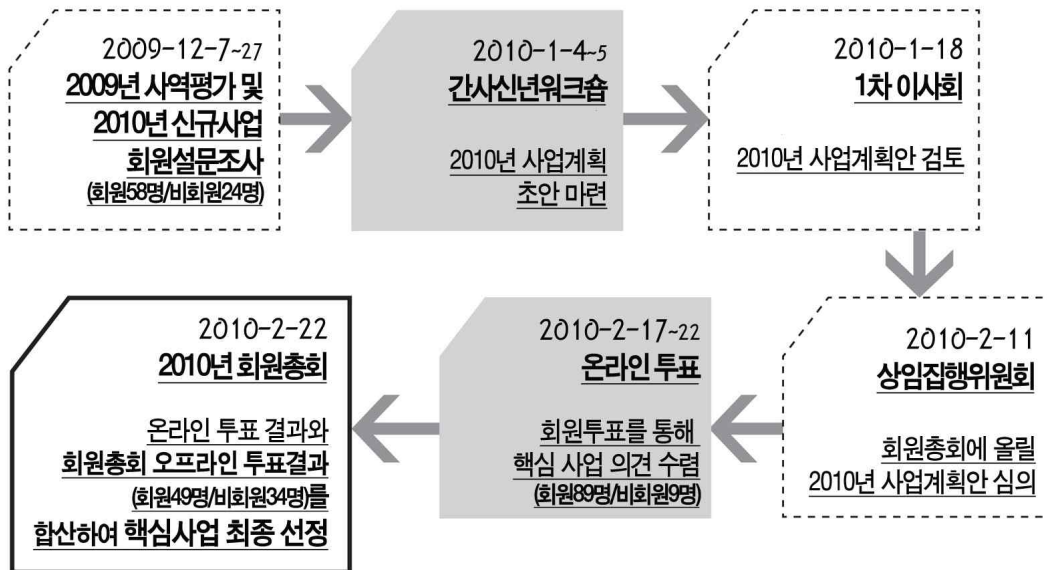
※ 본 사역열매보고 내용은 2010년 기윤실 소식지에서 관련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0년 기윤실 주요사업 선정절차

1. 선정절차

- 기윤실은 회원 여러분이 기윤실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2008년부터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해의 핵심 사업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2010년에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신규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들을 기초로 정리된 2010년 사업 계획안을 이사회와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사회와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통해 정리된 6대 주요사업 중 온라인(2월17일-2월22일)과 오프라인(2월22일 회원총회) 회원투표를 통해 2010년 기윤실 2대 핵심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2. 2010년 기윤실 주요/핵심사업 선정 과정



3. 2010년 기윤실 핵심/주요사업

범주	사업명	
핵심사업	1. 2010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2. 기독교인 교육프로그램	
주요사업	기독교인 실천	1. 365 말씀과실천 캘린더
	교회신뢰	2. ISO26000 교회표준 개발
	사회신뢰	3. 기독교 사회혁신 기업가 아카데미
		4.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1.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말말말 컨퍼런스후기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가 잘되길 바라고 교회를 한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를 생각해 보라. 포도원주인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새벽시장에 구한 사람과 늦은 시간에 구한 사람에게 같은 가격에 일자리를 주었다.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구했다. 오후 6시에 일이 끝났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었다. 결국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은 품삯을 주기 위해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인 것 같다. 결국 하나님나라는 포도원을 위해 사람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품삯주기 위해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고 새벽에, 9시, 12시에 오후 3시, 5시에 나가보는 것과 같은 마음 자세와 사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첫째날 저녁집회 김동호 목사 비전나눔 중에서

누가 일꾼이 될 것인가를 생각 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관점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본문 28절에서 주님은 내 어깨에 짐을 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짐을 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순서가 명확하다. 29절에 보면 멍에를 지워주기 전에 우리의 짐을 저주시고 계신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짐도 질 수 없다. 은혜가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심지어는 원수의 짐까지도 질 수 있게 한다.

-둘째날 새벽예배 박은조 목사 비전나눔 중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좀 더 깊은 신앙, 깊은 신학의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이것을 확장 할 수 있는 물질 자원을 통해야 하고, 주변에 많은 단체들이 연대해야 한다. 각자 한다면 그들만의 모임으로 끝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에서 사역하는 결과물을 알리고 시민 사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 바라기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길 바란다. 그 소망이 없이는 건디기 힘들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꽤배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한다.

-셋째날 폐회예배 임성빈 교수 비전나눔 중에서

2010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일 시 : 2010년 8월 30일(월) 오후 2시~9월 1일(수) 오후 1시
- 장 소 : 필그림하우스(지구촌교회 영성수련원 www.pilgrimhouse.kr)
- 파트너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도시공동체연구소, 대교단, 목회사회학연구소, 커피밀, 크리스천라이프센터

※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의 컨퍼런스 백서를 참고해 주세요.

1.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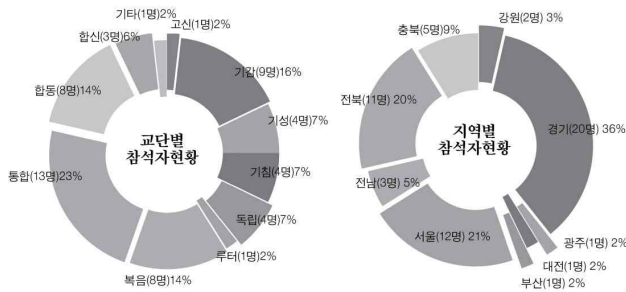
Q 기윤실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돕기 위해** 해야 할 더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 컨퍼런스의 지속적 발전과 ISO26000의 실제적 적용
- 컨퍼런스 이후 현장탐방 투어(기윤실 주관) 지역별로 우수사례를 2박3일 정도로 계획해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경험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사회, 봉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의 컨설팅 사역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세미나 개최, 네트워크 구성(참여 교회간의 네트워크)
-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의 winwin, 교회별 작은 실천사례들을 모아 회원교들에게 공개(인터넷)
- 교회의 윤리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필요.

Q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느낌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너무나 깨우친 것이 많다. 이제 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로 발돋움하겠다.
-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였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 패러다임의 변화 시간이었다고 큰 도전과 사역의 전환점의 시간이었습니다.
- 3년이 되어야 기초가 노리고 10년이 되어야 열매가 있다는 한 강사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큰 모임으로 발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교회가 지역과 함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작으면 작은대로의 책임감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새롭게 갖게 되었고, 여러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실천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명감과 도전을 받았음, 큰 방법(찾아감)의 중요성을 인식함
- 부교역자 입장에서 향후 미래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가자 통계



프로그램 일정

8월 30일	pm.	인사말 이동원 목사 축사 손인용 목사 개회말씀 박은조 목사(너희야말로 세상의 빛) 특강 원기준 목사(지역사회를 디자인하는 교회) 저녁말씀 김동호 목사(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8월 31일	am.	새벽예배 박은조 목사(JC의 명예를 따라) 전문단체 선택워크숍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커피밀, 크리스천라이프센터
	pm.	교회사례 선택워크숍 도시공동체연구소(바람빛교회, 꿈이있는교회), 목회사회학연구소(석천교회, 일빛교회)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매뉴얼 작성(Mapping)
9월 1일	am.	새벽예배 박은조 목사(성령의 은사와 섬김) Mapping 나눔 및 발표 폐회예배 임성빈 교수(협력하여 선을 이룸의 비결)

살롱.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소개로 찾아간... 그 이름도 낯선 '교회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이란 말이 가지는 빨간 색상은 나를 조금 움추리게 했고 단아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며진 펠그림 하우스는 나를 더욱 작아보이게 했다. 그리고 사례 발표와 세벽기도를 통한 목사님들의 말씀은, 찾기도 어려운 귀구멍 속에 나를 자꾸 밀어 넣고 있었다.

2박 3일의 일정 내내... 나는 그 구멍 속에서 살았다. 내 스스로가 빛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차라리 구멍 속이 편했는지도 모른다. 난 그 속에서 내 치즈를 가져간 도둑이 누군가를 발견했다. 그 도둑은 바로 나 였다. 내가 먹어 버리고는 모른 척 했다.

내가 교회를 휴처간 도둑이면서, 교회를 지키는 자로 알고 있었다.

윤실이네... 새로운 만남을 감사! 5리를 가라고 역지하면 10리를 동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함께 가고 싶다.

컨퍼런스 참가자 후기 중에서



2010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강사

- 비전나눔 : 박은조 목사(분당샘물교회),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임성빈 교수(장신대) 원기준 목사(광산지역사회연구소, 전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 워크숍(사례)나눔 : 성석환 교수(안양대 기독교문화학), 신산철 사무총장(크리스천라이프센터) 양세진 사무총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양재성 사무총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윤선주 대표(커피밀), 정재영 교수(실천신대원 종교사회학)

참가자 평가(주관식)

1.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향후 개선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교회가 마을을 살려야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례발표가 아닌. 교회가 지역을 공동체를 마을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소개하면 좋겠다.
- 교회가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정부, NGO/NPO, 교회, 선교단체, 타종교(혹시 가능하면) 등의 섭외 부탁드립니다.
- 교회의 전도, 훈련, 목양에 대한 열심이나 헌신이 결코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배려했으면 합니다.
- 전략실습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교회의 사례를 나누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 세우기 전략실습'이라는 제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전문단체 선택 워크숍의 선택이 폭이 넓어졌으면,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 걸맞는 행동이나 결의가 있었으면
-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전채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본질인지 아니면 부가적인 것인지 구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공공신학 내지는 디아코니아와 같은 신학적 개념 정리도 전문가를 통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 현재 참석 교회가 소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큰 교회도 ex.온누리, 명성, 순복음 등 (큰 교회도 꼭 들어야 할 교육), 이미 작은 교회는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음(지역 공동체)

2. 기윤실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돕기 위해 해야 할 더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 컨퍼런스의 지속적 발전과 ISO26000의 실제적 적용
- 컨퍼런스 이후 현장탐방 투어(기윤실 주관) -지역별로 우수사례를 2박3일 정도로 계획해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경험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사회, 봉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의 컨설팅 사역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세미나 개최, 네트워크 구성(참여 교회간의 네트워크)
-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의 win win, 교회별 작은 실천사례들을 모아 회원교들에게 공개(인터넷)
- 교회의 윤리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필요.

3.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느낌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너무나 깨우친 것이 많다. 이제 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로 발돋움하겠다.
-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셨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 패러다임의 변화 시간이었고 큰 도전과 사역의 전환점의 시간이었습니다.
- '3년이 되어야 기초가 내리고 10년이 되어야 열매가 있다'는 한 강사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큰 모임으로 발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교회가 지역과 함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작으면 작은대로의 책임감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새롭게 갖게 되었고, 여러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실천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명감과 도전을 받았음, 큰 방법 (찾아감의 중요성을 인식함)
- 부교역자 입장에서 향후 미래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경향신문] 2010-09-02 도재기 기자 jaekee@kyunghyang.com

“교회도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이제 도시교회의 지역선교 전략은 지역의 필요와 의제를 담아내는 문화적 소통과 변혁적 운동의 일환으로 재편되어야 할 시기가 됐다. 도시교회의 문화공간은 지역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화해와 창조적 참여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도시는 지역공동체 형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성석환 안양대 교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대 사회가 파편화되고, 약육강식 논리가 판을 치면서 현대인들의 소외가 한층 심화돼 공동체 필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고 섬겨, 공동체 외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도 하락의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는 신뢰회복 등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연 ‘2010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서는 지역사회 속에서의 교회 역할, 특히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방안 등이 제기됐다.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꿈꿉니다’란 주제의 컨퍼런스는 현장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와 전문가들의 사례 발표와 특강, 분임 토의 등으로 치러졌다.

성석환 교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교회의 문화선교’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 교회들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형성해 나가는 일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교적 과제”라며 도시교회들의 문화선교를 강조했다. 성 교수는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 공동체 붕괴, 소비시장으로의 전략에 따른 환락과 퇴폐 만연 등의 문제들은 교회의 선교적 과제”라며 도시속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90년대 이후 도시교회들이 문화적 방식의 선교·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여전히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전략이 유지되면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의제와 상관없이 교회건물 중심의 일방적 전략을 전개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재영 교수는 ‘지역교회와 농촌공동체 운동’ 발표에서 “한국 교회는 사회사업·사회봉사·사회복지 등의 이름 아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해왔지만 이런 활동이 그저 복음전도의 수단이나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이뤄진 것은 문제”라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교수는 농촌 교회가 지역공동체 형성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하며 “지역주민들이 특색을 유지하고 공동체의식 속에 주체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신앙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기독시민교육프로그램



윤리적 혁신 여행을 다녀온
백요한 회원 인터뷰

인생에 있어 **든든한 보약** 을 먹어 둔 느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매킨타이어, 하버마스 등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들의 철학을 숨가쁜 직장생활을 끝낸 저녁시간에 따로 배우고 나누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다. 6주간의 윤리적 혁신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5인!(강성호, 백요한, 윤수정, 윤나래, 최하은) 그 중에서 독서모임 광고를 보고 알리(기윤실 총장님을 칭함)에게 친히 메일을 보내 자신은 20, 30대가 아닌데 참여를 해도 되겠냐는 강력한 의지를 전한 분이 계시다.

호기심 많은 윤실이, 당장 백요한 회원님 사무실 근처로 달려갔으니... 6월의 마지막날, 바쁜 점심시간에 짬을 내 주신 덕분에 선릉역 근처 갈비탕을 먹으며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기윤실회원은 언제부터 되신 겁니까?
본래 대학가서 학생운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학과 선배가 나를 기학연 세계관강좌 비슷

※ 2011년에는 청년포럼, NGO아카데미, 기독시민아카데미 등 기윤실만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독시민교육 운동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 곳에 데리고 갔다. 모태신앙 특유의 뜨뜨미지근한 신앙이었던 나는 그 곳에서 일종의 사회적 회심을 경험하였던 거 같다. 기학연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같은 공간을 쓰던 기운실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유혜신 간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함께 활동을 하자고 했던 거 같다. 그렇게 알게 된 인연이 대학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후원을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

그럼 윤리적혁신독서모임은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셨나요? 평소에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뭔가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기운실에서 독서모임을 한다고 하길래 선뜻 마음이 동했다.

함께 독서모임 하시니 어떠셨나요. 커리큘럼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의욕을 갖고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 고비가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던 날은 다른 약속과 겹쳐서 기운실 독서모임을 빠져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당일 취소가 되더라. 그래서 뜻이 있나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로는 꾸준히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이 참 좋은게, 평소에 내가 고민하던 것을 이미 그 천재철학자들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놓았더라. 그걸 읽으면 나 역시 수월하게 정리가 되었다. 철학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뭔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인생에 있어 든든한 보약을 먹어둔 느낌이 든다.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다.

특별한 후원을 하셨던데요? 기운실을 후원하면서 기운실 사무실을 처음 와 봤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회의실이나 강의실도 여럿 되는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와보니 이게 굉장히 작고...뒤편까...후원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생각했던 기운실이랑은 너무 달라서 솔직히 놀랐다. 그런데 후원액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보증을 하는 사람이라 보험방식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후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싶었다. 그 전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았던 거 같다. 일종의 생명보험 같은 거다. 내가 죽으면 기운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식이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다. 기운실의 운동이 지속되리라는 믿음을 전제한 후원방식일 수 있다. 가치의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음의 때에 보험금을 기운실에 내어 놓겠다는 거다. 열심히 살아야 할 거 같다.

기운실 회원으로서 직장생활 하시기 어떠신가요? 쉽지 않다. 거짓말하지 않고 직장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 같다. 거짓말을 하는 당연한 태도와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태도 사이에서 여러 고민을 했던 거 같다. 이제는 그 둘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더니 지혜가 생기더라. 제3의길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나같은 경우는 이름이 '요한'이라서 직장일로 만나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나를 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불편해서 개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로 개명을 하고 싶어졌다.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는 방식과 태도를 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름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고 싶다.



2. 기독시민교육프로그램



이제부터 진짜 시작!

3월 18일부터 지난 5주동안
우리의 신앙에는 미셔널 혁신이 점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셔널 혁신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음의 혁신은 날마다 직면하는 삶속에서 마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시작되고, 「마음의 혁신」

우리의 신앙은 혼자 잘 살 수 없기에 사회적 삶 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회심」

그 사회는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바, 「다원주의사회에서의 복음」

다원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받고 복음을 전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앙트레 프레니십' 「가난없는 세상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위한 새로운 가치로서 혁신적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

Wow~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독서클럽을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김재남 / 한 개인의 생각에 큰 변화를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김경화 / 눈이 번쩍!! 생각이 번쩍!!

정찬형 / 더 많은 고민을 남겨준! 실질적인 고민들을 나눌수 있어서 좋았다.

안대성 / 머리에 불이 번쩍!

채신애 /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안 읽는 분들에게 강추~!

최혜민 / 실천, 실천, 그러나 내적충돌...^^;

유민경 / 이기적 신앙은 그만! 청년의 때,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시간~* 감사.

김소현 /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연장선.

마지막 모임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의 사진과 소감은 올리지 못하였지만,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책을 읽으며 나누었던 것들이 우리 삶에 녹아내려서 순간순간 떠오르길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멋진 그대를 그려보며...

3. 365 말씀과실천 캘린더

부천평안교회 교인들이 함께 만든



365 말씀과실천캘린더
2011


부천평안교회와
함께 만든
365 캘린더 표지

365명의 기부자와 청주기윤실이 함께 만든




청주기윤실에서
만든
365 캘린더 표지

365 말씀과실천캘린더
2011




3/7
Monday

기부자 / 이윤나 동역자 / 이범호 방순영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눅8:15]



March
20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실천사항 / 주님과 친밀해지기

부천평안교회

총회 당일인 3월 7일 365캘린더 내용(부천평안교회용)

4. ISO26000 교회표준 개발



윤실이네 2010년 주요사업 중 요상한 이름이 하나 있으니, 영어와 숫자의 조합으로 야릇한 ISO26000!!!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도 아니고 말이야~)

ISO26000, 너의 정체를 밝힌다!

ISO야 냉장고문을 자세히 보면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인증마크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 국제표준화기구를 칭하는 말이고 26000은 여러 표준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책임(SR)'의 원칙과 사회책임 구성하는 쟁점 사항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지침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ISO26000은 5년여간 진행된 국제적 합의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난 2월, 회원국 79%의 찬성을 얻어 최종안(FDIS)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올 10월이나 11월 국제표준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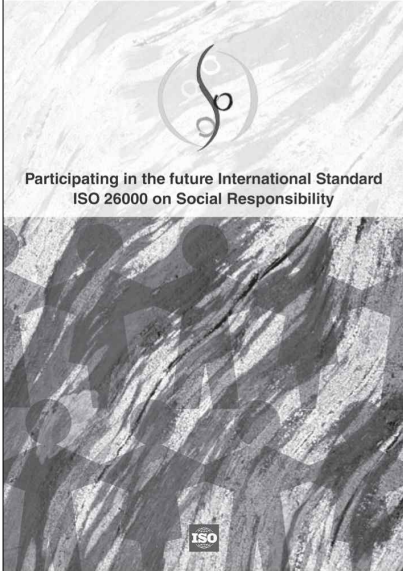
아니 그런데 경영단체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기윤실에서 왜 ISO26000에 관심을 갖나?
ISO26000에서 말하는 사회적책임은 단순히 일부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이다. 그래서 이 표준은 기윤실과 같은 NGO를 포함(21p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참고) 기업, 공공기관, 종교기관, 정부까지도 예외일 수 없이 모두 대상이 된다.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공적 구성원인 교회는 말해 무엇할까. 그래서 올해 기윤실은 ISO26000에서 제시한 표준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적용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무래도 최초 ISO26000 논의가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된 것이라 교회현실에 맞는 적용점을 찾아내는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6일(금) 사회적책임의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교회사회적책임위원회(가칭)> 내 전문위원회로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었다. "ISO26000의 전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인데 과연 교회의 존재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는 형이상학적 문제에서부터 "ISO26000의 핵심이슈 중에 노동관행이나 공정운영관행과 같은 문제는 현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부교역자의 처우문제나 교회의 운영이나 건축에 필요한 거래처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공론화해야 할 때가 된 거 같다"는 이야기까지 전문가들의 냉철함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한국교회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논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ISO26000 교회표준(가제)의 목표는 교회를 평가하거나 서열화하는 것이 아닌(이는 ISO26000의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인증이나 강제규정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교회가 반드시 짚어볼만한 운영상의 지침들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교회 재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해 질 수 있다면, 교회구성원의 관계가 보다 수평적이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 협력업체나 물품수급업체와 교회와의 관계가 보다 공정할 수 있다면, 또 지역생태계와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교회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나라의 일반은총적 버전이 아닐까. ■



※ 2011년에는 R&D 차원에서 ISO26000의 교회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ISO26000 교회표준이란?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교회용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2010년 11월경 공표 예정,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대형, 중소형/도시형, 농촌형 포괄)의 교회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이 될 예정

- 적용 수준 : 강제하지 않으며, 서열이나 점수와 목적 아님
- 개발 목적 : 사회책임의 원칙(Principles)과 사회책임을 구성하는 쟁점사항(Issues) 및 조직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지침(Ways to implement) 제공 목적

•ISO26000교회표준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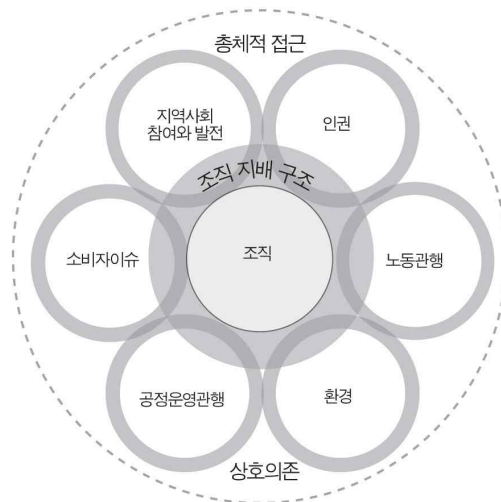
- 위원장 : 양용희(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엔씨스콤 대표)
- 위원 : 황상규(영국표준협회BSI Korea 전문위원, ISO 26000 SR 한국위원회 대표), 박병욱(전 경실련 사무총장, 경제학 박사), 이상화(한목협 사무총장, 신학박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외문화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최혁준(라임글로벌 대표), 황호찬(세종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신뢰지표 개발 책임연구원), 양제진(기윤실 사무총장)
- 자문위원장 : 주철기(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한국교회사회적책임위원회는 기윤실, 기독교경영연구원, CLF, 한목협 등의 기독교단체가 주관단체로, BSI, 라임글로벌, 유엔글로벌콤팩트 등의 전문단체들이 협력단체로 참여하여 구성될 예정입니다.

•ISO26000의 7가지 핵심이슈 (오른쪽 그림)

•ISO26000 교회표준 개발 일정

- 4월초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
- 4~9월 ISO26000 교회표준 초안 작성
- 5월경 ISO26000 검토작업
- 6~7월 파일럿테스트
- 9월경 초안 수정및보완
- 10월경 1,2차 공청회
- 11월경 최종안 발표, 보고서 제작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 일시/장소 : 10월8일(금) 오후2시 / 청어람
- 기조발제 : 황상규 박사(ISO전문위원)
- 주제발제 : 황호찬 교수, 김종철 사무국장(기독교법가회), 조성돈 교수

※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의 포럼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ISO26000(사회책임)을 교회(조직)에 적용할 때의 7대 이슈별 주요 측면들

※ 본 자료는 기윤실이 주관하고 있는 교회의 사회적책임 표준 개발을 위한 기본자료로 초안임을 밝힙니다.

※ 정리 : 황상규 (영국표준협회BSI Korea 전문위원, ISO 26000 SR 한국위원회 대표)

1. 조직지배구조

1. 주요의사결정 기구(예: 당회 등)의 의사결정 및 과정은 설명책임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2. 의사결정 및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고,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3.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보상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4. 조직은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조직의 고위급 지위에 과소평가된 집단(여성,소수자등)의 공평한 대우 촉진한다.
6.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일치 불일치 범위를 규명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7. 조직의 의사결정에 남성과 여성 직원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8.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권위, 책임, 능력 수준의 균형을 유지한다.

2. 인권

1. 조직운영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인권존중을 옹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직간접적 및 무언의 공모(인권남용에 고의적으로 상당히 개입되는 상황)를 적극 회피하여야 한다.
4. 조직의 보안체계는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규범 및 법 집행을 위한 표준과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
5. 조직은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유 매커니즘을 설립하여야 한다.
6. 치유 매커니즘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7. 조직은 취약그룹(여성,장애인,아동,원주민등)등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8. 조직은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개인의 삶, 의사표현자유, 집회결사자유 등)를 존중해야 한다.
9. 조직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노동

1. 조직은 고용자로서 완전하고 안정한 고용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2. 조직은 피고용자가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안해야 한다.
3. 조직은 피고용자의 임금, 보상, 근무시간 등 노동 조건을 국제노동기준 및 국내법에 따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노사정 대화 방식을 비롯하여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조직은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

1. 조직은 여러 유형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의 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수자원을 보전하고, 각종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4. 조직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조직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조직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공정운영관행

1. 조직은 조직운영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로비, 정치적 공헌,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3. 조직은 각종 계약, 투자, 금전 거래, 협력업체 선정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4. 조직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5. 조직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6. 공급망(Supply Chain)에 걸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운영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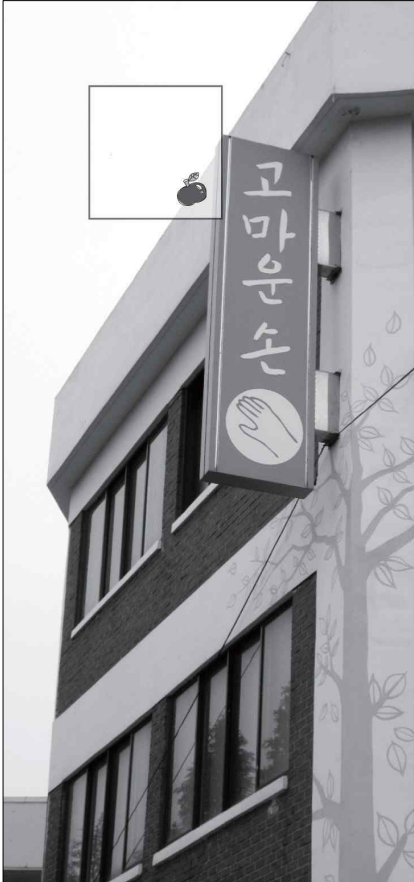
6. 소비자

1. 조직은 공정성과 투명성, 배려의 원칙으로 소비자를 대해야 한다.
2. 조직은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강요하지 않는다.
4. 조직은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극 대응하는 실행 방안을 개선한다.
7.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8.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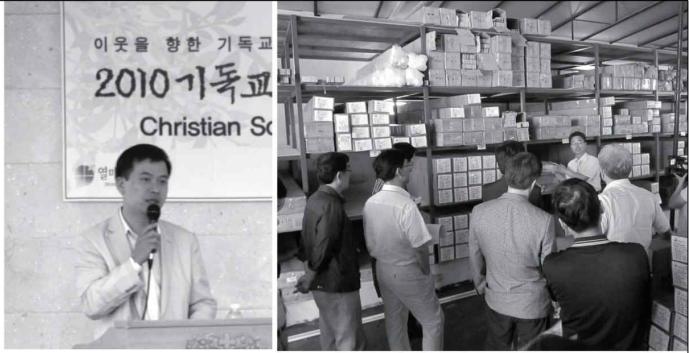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 조직은 지역사회의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창달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부와 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조직이 속한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5.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2010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가다
 Christian Social Enterprise Academy



“사회적기업은 구제와 자선을 넘어
 가난의 덫물림을 끊고,
 다시 꿈을 꾸게 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6월 14일 오후 2시에 시작된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첫 강의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포항 등지에 40여명의 목회자 분들께서 참석 해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뜨거운 열기는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이날은 사회적기업 관련 소개 영상을 본 후 열매나눔재단의 김범석 사무총장의 '사회적기업 모델'이라는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범석 목사님은 1997년 쪽방촌에서 노숙자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일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자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사회전교사입니다. 기독교의 사회적책임과 각 나라의 사회적기업 시작 배경, 모델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열매나눔재단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메자니아이팩', '메자니아코원', '고마운손'의 사례를 나눠주셨습니다. 김범석 목사님은 교회가 직접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역량있는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생생한 경험담이 많은 참석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강의일정** (오후 2시 ~ 6시)
- 6월14일 | 사회적기업의 신학적, 선교적 이해, 역사와 의미 소개 김범석 사무총장(열매나눔재단) 교회의 사회적책임 실현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윤선주 목사(디딤돌교회, 커피밀 대표)
 - 6월21일 | 경영의 관점으로 본 사회적 기업 박철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사회적기업 사례 및 분석 양용희 대표(엔씨스름,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 6월28일 | 사회적기업 현장 탐방 (1일 코스)
 - 7월 5일 | 교회와 사회적기업 정무성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과)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 실천사례 이상진 사무국장(열매나눔재단)

* 전문은 기윤실 블로그 <http://trustitistory.com/63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강사

- 1주차(6/14) : 김범석 목사(열매나눔재단), 윤선주 목사(커피밀)
- 2주차(6/21) : 양용희 교수(호서대), 박철 교수(고려대)
- 3주차(6/28) : 사회적기업 견학 "고마운손, 메자니아코원"
- 4주차(7/5) : 정무성 교수(송실대), 이상진 사무국장(열매나눔재단)



박철교수(고려대 경영학과)의 강의를 듣고

**경영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기업**

글_배영오(장신대 신대원)

이번 강의는 **앞선 시간의 사회적 기업의 이론과 특징들을 살핀 후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박 교수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사회적 봉사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장과 경쟁과 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부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과의 공통점은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영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며 반대로 차이는 기업이 결과 중심적인 것과 달리 돈을 버는 과정과 선한 뜻에 초점을 둔다는 것과 취약계층을 고용대상으로 하며 좋은 재료, 가격, 투명성, 공정의 윤리를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적 간병인, 공부방, 재활용사업을 예로 들고 있다. 종합하면 사회적 기업의 경영학적 의미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전통적 기업가치 사이에서 영성(spirit)을 가진 착한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21세기에 불고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실례로 실리콘 벨리의 빈민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마 벤처스'가 있고 국내 '조이비전'의 미용훈련과 창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거제 참알로에 효소사업이 소개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이러한 특징과 장점 이면에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이 영세하고 비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것과 자생력,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과 생산전략, 마케팅전략, 인사조직 전략, 회계재무 전략 등에서 취약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대의 흐름이자 요청이면서 하나님의 소명(Calling)이라는 의의와 연속성의 당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알로에 효소 사업은 시골의 단친 공동체를 신앙과 공동체성과 사업성을 불러일으켜 지역사회의 혁신과 나눔과 신앙의 달란트들을 발견 하게한 '은혜의 사회적 기업' 이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미래 비전이 있는 사업이며 정부주도의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부와 전문경영인의 지원아래 혁신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이 육성이 우선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사명은 한국기독교의 기회이자 사명이며 지향점을 지적하고 이웃사랑과 복음전파를 위해 창조성, 호혜성, 공정성, 신뢰성의 기독교정신과 성경적 원리를 잘 적용한 기업조직의 창조에 교회가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그 절차로서 첫째, 기독교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둘째, 사회적 기업개발과 교육 셋째, 창업 지원, 넷째, 사업경영 및 인증신청 다섯째, 목표달성지원과 고용창출의 과정을 거쳐 대학, 정부, 선교단체, 경영전문가, 기독교 실업인 선교투자 펀드 등의 협력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강의의 장점은 교회가 취약성을 가진 경영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사회적 기업과 실제적인 실례들을 보여주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21세기의 사회의 흐름을 잘 분석하고 교회가 21세기의 사회와 국가를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 대안과 선교 대안을 제시하는 과감성도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공동체적 기업'으로 본 시각과 이 땅의 소외 계층들을 그 중심에 두고 그들을 살리고 부활하게 하는 그리고 현실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실천임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이후 생략)

* 전문은 기윤실 블로그 <http://trusti.tistory.com/64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TRU⁵T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
INITIATIVE

교회 주보만 **재생종이 사용** 해도
연간 **2만 2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윤실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안내

“재생종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생종이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생종이의 은은한 미색을 ‘누런종이’로 표현하며 예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색빛 나무를 원료로 하는 종이도 푸른빛을 띄는 백색종이로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화학적 인공적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환경오염의 보이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줄기를 이용해 종이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150여년! 숲에서 벌목하는 나무의 42%가량은 펄프의 원료로 사용되며 이 펄프는 종이의 원료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이이지만 이 종이로 인해 지구전체 원시림의 2/3가 훼손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새 하얀 종이를 보고 무덤덤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재생종이의 은은한 미색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한국교회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윤실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안내서 - Recycle paper, save trees | 1

Recycle paper. Save trees. GREENPEACE

재생종이! 너는 누구냐?

1. 재생종이란?

재생종이는 말 그대로 버려진 종이를 모아 되살리는 종이입니다. 일반 종이가 나무에서 섬유소를 뽑아 만든 펄프로 만들었다면 재생종이는 폐지를 그 원료로 합니다. 재생종이가 모두 100% 폐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 100% 재생종이는 품질이나 가격 등의 문제로 구하거나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종이 함유율(고지율이라고도 합니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율 50%라면 이 종이에겐 재생종이가 50% 사용되었지만 나머지는 재생종이가 아닌 목재펄프나 비목재펄프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보통은 목재펄프만 사용되나 비목재펄프가 사용된 경우는 아주 고가의 수입지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율이 높을수록 좋지만, 재생종이를 처음 사용하는 입장이라면 고지율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재생종이가 함유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2. 사용 전 고지와 사용 후 고지??

사용 전 고지는 제지사에서 종이를 만들고 가공을 하면서 버려지는 찌가리를 다시 모아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 사용 후 고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지수거를 통해 만들어진 재생종이를 나타냅니다. 기윤실 소식지는 표지는 사용 전 고지 55%, 내지는 사용 후 고지 60%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생종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재생종이의 경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일반적으로 재생종이 함유율이 높을수록 누런 색깔을 띠고, 종이질이 떨어집니다. 물론, 폐지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폐지를 사용한다면, 공정에 따라 고지율이 높으면서도 희고, 종이질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겠지요? 우리가 흔히 인쇄에 사용하는 종이가 모조지인데, 모조지와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수급에 문제가 없어야 재생종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윤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생종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기윤실에서 여러번에 걸쳐 인쇄에 사용해 본 것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서(대다수 재생종이의 경우 이윤문제로 인해 일정수량 이상이 되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적으로 일반종이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거나, 더 저렴한 재생종이들입니다. 일반종이와 가격이 비슷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재생종이를 더 조사해서 계속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름	고지율	특징	기윤실사용
인쇄용	중질만화지(70g)	사용 후 고지 60% 이상	본문종이용으로 사용	① ③
	양코르지(130g)	사용 전 고지 55%	표지종이나 브로슈어용으로 사용	① ③ ⑤
복사용	친환경복사용지(75g)	고지율 40%	일반복사용지와 품질차이 없음	④
명함	스쿠틀랜드(220g)	고지율 70%	명함인쇄소에 제공하는 재생종이	②



소량으로 구매하기 어렵지만, 본문종이용으로 추천하는 또 다른 재생종이로는
 그린라이트(고지율 20%),
 그린서적지(고지율 20%),
 엘라이트(고지율 60%),
 팬 브라이트(고지율 85%) 등이 있다.

재생종이! 이것이 궁금해요

1. 재생종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나쁜 것은 아닌가요?

재생종이 공정 또한 수거/탈묵 단계를 제외하고는 일반종이 공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종이쓰레기를 매립, 소각하면 더 큰 오염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의 나무를 벌목하고 가공해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더 유익이 됩니다.

2. 재생복사용지는 복사기에 자주 걸리지 않나요?

시중에서 A4나, B4사이즈로 제단되어 판매되고 있는 재생복사용지는 엄밀하게 구분하면 평량이 50~60g/m²의 '중질지', '갱지'와 75g 이상의 '친환경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중질지와 갱지의 경우 고지율이 더 높고, 저렴한 재생종이지만, 일반복사기에서 사용할 경우 적은 평량으로 인해 걸림, 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복사용지'는 평량이 75g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복사기에서의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복사기의 성능에 확신이 없을 경우 평량이 75g 이상인 '친환경복사용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재생종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에 비해 비싼가요?

재생종이의 경우 고지율 함유율이 높을수록 누런색깔을 띠고, 종이질이 떨어집니다. 다만, 고지율이 높으면서도 희고 종이질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종이들은 주로 수입재생종이로 고가입니다. 기윤실이 추천하는 재생종이(민화종질지, 양코르지, 재생복사용지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조지나 레자크지, 복사지에 비해 구입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더 저렴합니다.

4. 재생종이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재생종이(복사용지)는 일반종이에 비해 어둡고, 섬유소가 짧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컬러인쇄(복사)의 경우 색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거나, 고속/고열 복사의 경우 걸림 또는 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율 100%의 재생종이가 아니고, 평량 70g 이상의 재생종이를 사용한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흰 종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은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62만여명에 달한다. 매주 862만여명이 모두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매주 만들어지는 주보의 양은 862만여장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주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862만여장(주보의 크기를 A4, 매수를 1장으로 가정했을 때)의 주보를 재생펄프 함유율(고지율) 50%의 종이에 인쇄했을 때 **매주 431그루(통상 30년생 원목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종이량은 A4 기준 1만장이다)**를 살릴 수 있고, **연간 52주로 계산했을 때, 2만 2천여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궁인 덕수궁의 경우 1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창덕궁의 경우 5만 6천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

즉, 계산식으로 보면

8,620,000장(통계청 조사에 근거한 개신교인수, 주보를 A4 1장이라 추산했을때) X **52주** ÷ **10,000장**(30년생 원목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종이량) ÷ **2**(고지율 50% 적용) = **22,412그루**

교회들이 주보만 재생종이 사용해도 덕수궁에 심겨져 있는 푸른나무의 2배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보 뿐 아니라 복사용지, 인쇄물까지 재생종이를 사용한다면 덕수궁, 창덕궁이 아니라 서울숲(41만여그루), 서울 월드컵공원(73만여그루)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재생종이! 어떻게 사용하나요?

1. 교회 사무실 A4를 재생복사용지로 바꾸기

모든 교회 단체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4복사용지를 재생복사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교회 사무실에서 출력용이나 복사용으로 사용되고, 작은 교회의 경우 복사용지에 주보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생복사용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는 불가능하고, 성림몰(<http://sunglimmall.net>)과 곰두리몰(<http://gomor.kr>)에서 친환경복사용지라는 이름으로 A4와 B4 구매가 가능합니다. 옥션 등에서도 친환경복사용지로 검색하면 판매하는 곳이 나옵니다. 단 이 경우 재생종이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본 안내서 3페이지 2번 질문 참조)

2. 기획사(인쇄소)와의 작은 전쟁! 주보와 헌금봉투 바꾸기

교회 복사용지를 재생복사용지로 변경했다면 이제 주보와 헌금봉투도 재생종이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의 경우 기획사나 인쇄소에 의뢰해서 주보나 헌금봉투를 인쇄하게 되는데, 보통 기획사나 인쇄소의 경우 재생종이 사용을 꺼립니다. 이때 그냥 재생종이를 사용해서 인쇄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본 안내서 2페이지에 있는 재생종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쇄를 요청하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인쇄수량이 너무 적거나, 인쇄를 급박하게 요청하시는 경우, 지역에 따라 수급 문제로 인해 재생종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구하기 어렵거나, 인쇄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3. 명함도 재생종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윤실이 사용하는 명함종이는 스코틀랜드라는 재생종이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수입 재생종이로 아주 고가의 종이이지만, 서울의 명함 전문업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종이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기윤실은 성진애드캡(<https://dtpia.co.kr>)이란 업체를 통해 명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쇄만 해 주는 곳으로 디자인은 직접 해서 넘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보를 재생종이로 변경해서 살릴 수 있는 나무를 계산해 보세요~

30년생 원목 1그루가 생산하는 종이량은 A4 기준 약 10,000장입니다.
중질만화지(고지율 60%)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 봅니다.

매주 인쇄부수 × A4 변환 장수(사이즈를 대략 A4로 환산) × 52주 ÷ 1만장 × 60%(재생종이함유율) = OO그루

예) 매주 A4 2장 분량의 주보를 500부 인쇄하는 교회가 연간 살릴 수 있는 나무
500부 × 2장 × 52주 × 60% ÷ 10,000장 = 3그루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140-01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¹ 02-794-6200 Fax¹ 02-790-8585 이메일¹ cemk@hanmail.net



기윤실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안내서 - Recycle paper, save trees | 4

* 본 자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종이를 사용했습니다.

Recycle paper. Save trees. GREENPEACE

7.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결과

2010년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본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는 12월 15일 진행될 예정이
 며, 여론조사 결과 전체 내용과 분석내용을 담은 세미나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조사 개요

① 조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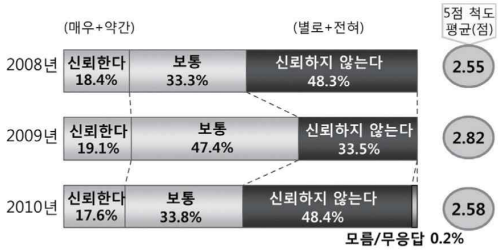
본 조사는 개신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조사 연구로서 현재의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성 수준을 파악, 교회의 건전성 확립 및 교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남녀
- 조사 지역 : 전국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3.1%
- 표본 추출 : 성 / 연령 / 지역별 인구수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조사 기간 : 2010년 11월 8일-10일
- 조사 방법 :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표본 수 : 1,000명(유효표본)

2. 조사 결과

① 한국 교회의 신뢰도 5점 만점 2.58점, 17.6% 신뢰한다고 응답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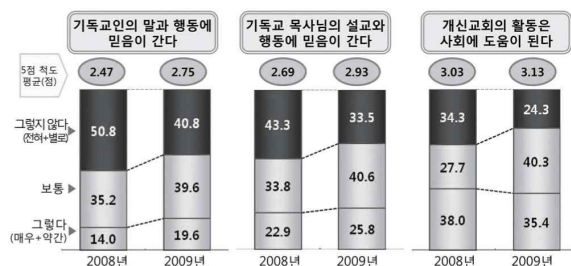
-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17.6%로 전년 대비 1.5% 하락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60대 이상',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학력이 낮을수록' 한국 개신교회에 신뢰도가 높은 반면, 불교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검토위원회

- 책임연구원 : 김병연 교수
- 검토 위원 : 신창운 기자(중앙일보 여론조사전문), 임성빈 교수, 조성돈 교수, 황호찬 교수, 조제호 팀장

※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의 여론조사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② 한국 교회 구성요소별 신뢰도 교회활동(2.83점)>목사(2.75점)>교인(2.6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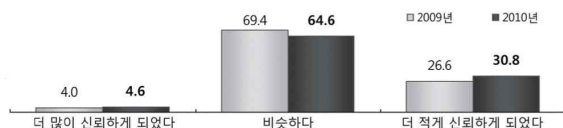


한국 개신교회 구성요소별 신뢰도

· 지난 조사 대비 속성별 신뢰도는 전반적인 모두 감소하였음.

③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비슷하다(64.6%),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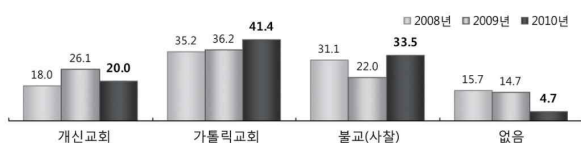


지난 2~3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 2009년 조사 대비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견은 4.2% 포인트 증가한 반면,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0.6% 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비슷하다'는 의견 또한 4.8% 포인트 감소해 실질적으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의 신뢰도에 감소했다는 의견이 지난 조사 대비 다소 증가함.

④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위

가톨릭교회(41.4%)>불교(33.5%)>개신교회(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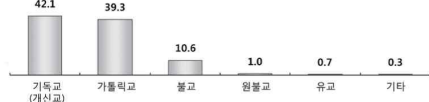


가장 신뢰하는 종교 기관

· 가톨릭 교회에 대한 평가는 3년째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년도 2위였던 개신교회는 '불교(사찰)'에 이어 3위로 내려 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개신교회'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데, 가톨릭교회의 경우 '서울' 지역,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에서, '불교(사찰)'의 경우 '60대 이상' 소득 '199만원 이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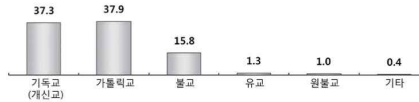
*사회봉사활동 적극 수행 종교

기독교(42.1%)>가톨릭교회(39.3%)>불교(10.6%)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 종교

가톨릭교회(37.9%)>기독교(37.3%)>불교(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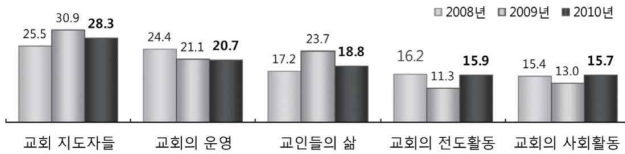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회에 걸친 1차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본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주기와 지난 3년동안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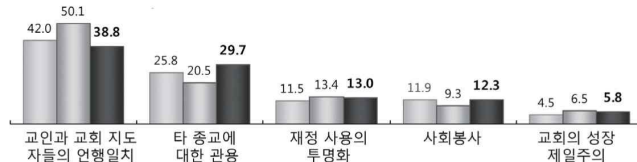
⑤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교인과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타 종교에 대한 관용, 봉사와 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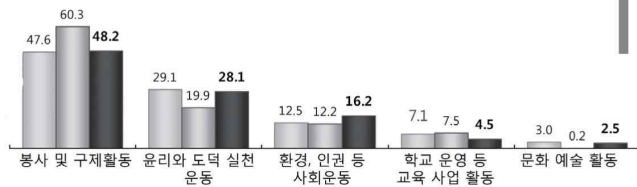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한 사회적 활동



· 지난 조사 대비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는 11.3% 포인트 하락한 반면,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은 9.2% 포인트 상승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개신교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봉사 및 구제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들은 기독교(개신교)가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⑥ 한국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 5점 만점 2.57점, 21.3% 관심있다고 응답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

· 개신교회활동 관심도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관심도가 떨어짐.

3.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언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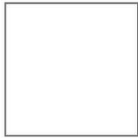
2008년 시작된 교회신뢰도 조사는 2010년 올해의 조사로서 본래 계획대로 세 번의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세 번 동일한 주제와 내용의 조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회 신뢰도의 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개신교회는 낮은 신뢰도의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신뢰도 하지 않고 불신도 하지 않는 수준”인 3을 하회하여 3년 계속하여 2.5~2.9점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에는 2.55점에서 작년에는 2.82점으로 상승하였지만 올해는 다시 2.58점으로 하락하였다. 즉 2009년의 유의미한 반등 추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2008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와 같이 3년 동안 계속 2.5~2.9의 범위에 머문 것은 개신교회의 낮은 신뢰도가 어떤 특정한 사건의 영향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한국 교회의 건강성이 위협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을 암시한다.

둘째, 비기독교인의 개신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개신교회 성장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톨릭과 불교 교인들 중에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다른 두 종교 기관 보다 개신교회를 현저히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 기관 사이의 비교에서도 비기독교인이 평가한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개신교회, 입법부의 순으로 개신교회의 신뢰도 수준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입법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신교회가 일반 사회와 이웃과 유리된 채 “우리들만의 세계”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를 반영하여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 갖고 싶은 종교에서도 개신교는 가톨릭과 불교에 뒤쳐 세 종교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지난 3년 간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는 한국 교회가 저신뢰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신뢰도의 위기는 향후 개신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를 강화하고 공세적인 전도를 통해 더욱 수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면 이는 교회 사이에 교인 수를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인들을 세상에 파송하기보다 교회 안으로 가두려는 경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교회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매우 참담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한국 개신교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기윤실이 주관했던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 연구가 바로 이러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운동을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8. 지방선거 캠페인 "Talk, Pray, Vote!!"



6.2 지방선거특집 talk, pray, vote!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pray)한 후
투표(vote)에 참여해요~

Talk 이야기/이야기에 보이는 것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비판받듯이, '주민없는 정치, '지방없는 지방선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누구나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중앙당의 선거 이슈에 묻혀 정책은 실종되고 마는 것이 우리네 지방선거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울 구의원의 경우 보통 연봉 4천만원이다.(대보험료 제외) 근데, 공식 의정활동일수는 1년에 120일이다.(1년에 3개월만 일하면 된다) 여기에서다도 겸직도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지방의회 시의원과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건설사 사장이 월급 받으면서 지방의원활동을 하는데, 소속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란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사용내역을 받아보면 더 가관이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의원 및 내빈 접대용 사탕구입비'로 87만원을 지출했다. 87만원을 한번 지출한 것도 황당인데, 한해에 몇 십만원 이상의 사탕구입비가 수차례라고 한다. 정말 궁금하다. 혹시 의원 중에 사탕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관심해야 하나?

만약, 그래도 무관심하고 싶다면.... 우리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이름이라도 알자. 너무 많아 이것도 힘들다면 최소한 단체장(광역/기초) 후보이름이라도 알자. 근데, 우리 지역 단체장 이름은 뭐였지...?!!

* 참고 '지. 군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구미시의회 의장, 한달 사탕값만 87만원' 오라영(오마이뉴스 2010.2.2)



Q. 정치수다 재미있게 할 수 없나? 커피당(Coffee Party Korea)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유권자 운동으로 미국의 진보성향 유권자 모임인 '커피파티(보수성향 유권자 모임인 '티파티'도 있다)를 본떠서 작된 모임이다. 만나서 정치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된 모임이지만, 심각한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해본다는 것! 커피당 카페 (<http://cafe.daum.net/coffeepartykorea>)에 들어가면 전국의 커피당 모임을 안내하고 있다.(직접 만들어도 된다. 친절한 운영 매뉴얼도 제공한다)



Q. 좋은 공약은 무엇이니?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볼 때 두루뭉술하거나, 허황된 공약인지,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인지 파악해야 한다. "우리 지역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육아시설 확충에 힘쓰겠다" 등과 같은 두루뭉술할 공약이거나, "우리 구청을 1,000억을 들여 건축하겠다" 등의 허황된 공약이 아닌 <사업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이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이다.

Q. 도편추방제, 마이너스 1표 제도가 무엇이니? 이도저도 복잡하다면... 이런 발칙한 상상은 어떤가?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대에는 봄에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국가에 위협을 끼칠만한 정치인의 이름을 도기 조각에 적어내어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ostrakismos)'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 당선되면 안된다라는 사람에게 '마이너스 1표'를 행사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런 상상을 해 보면 정치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나?

- 여성들만의 울동 거부(양성평등위배, 시대에 뒤떨어짐)
- 차로 이동하며 강연 금지(위험하니까)
- 대중강연 거부, 마이크사용금지(시끄러움)
- 정책홍보지 재생종이 사용
- 차량 사용 안하는 후보 밀어주자(걸어야 민생이 보인다, 이산화탄소 경감)
- 현수막 글수록 감점(현수막 크기와 개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엄청 낭비 심함)
- 나도 출마하자(내 선거구에서 단독출마자가 무투표로 선출되지 않도록)

※ 기윤실 e library 블로그(http://blog.naver.com/e_library)에서 선거와 관련된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가까운 지역정부로 하여금 적절히 처리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지방선거는 중앙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지방선거로 인해 정책선거가 실효되고, 지지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와 50% 내외의 낮은 투표율은 '우리 손으로 지역대표를 선출한다' 지방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talk, pray, vote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ray 기도하기 들어오는 것

민주주의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이고, 그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정치제도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 되면 약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것이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곧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선거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비록 유능한 사람이 낙선하고 무능한 사람이 당선되어도, 그 선거과정의 깨끗하고 합법적이면 그것은 정의로운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를 통하여 유능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무능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과정이 깨끗하면 앞으로 유권자들이 성숙함에 따라 유능한 사람이 당선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정선거는 무능한 사람을 당선시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공정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위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곳이 거의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평균 시민들보다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를 얼마든지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 "공명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에서 발췌(손봉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과 정직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번 6.2지방선거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투표참여로 지역에 소외된 약자가 보호받고 그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선거가 되길 소망해 본다.

Q. 교회에서의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특정 후보자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지지권유한 경우
- 특정 후보자가 교회의 기념행사에 강사로 나서 자신을 선전하는 경우
- 교회에서 발간하는 주보/소식지/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게재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통상헌금 수준이 아닌 거액의 헌금을 한 경우
- 교회성도가 동료 성도들을 모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을 제공한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는 경우



6.2 지방선거를 위해도합시다

정의로운 사회를 소망하며 1/ 21세기 분권화의 시대에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국민을 온전히 섬기는 지역 대표가 선출되도록 2/ 이번 선거를 통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들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먼저 인정해 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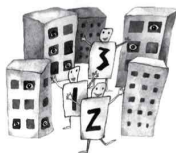
한국 교회를 위하여 1/ 믿는 사람 또는 우리 교회 사람이 출마했을 때 투표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유권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지역사회에서 대신 할 수 있는 지역 대표를 뽑는데 선도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2/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도록

유권자 의식을 위해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투표참여를 권고할 수 있도록 2/ 부정선거에 개입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양심을 갖도록

기독교유권자7대행동지침

1. 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한다.
2.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3. 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4. 소속 정당 대변자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지지한다.
5. 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6. 반드시 투표하며 주변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7. 합법적 선거결과에 승복한다.

Vote 투표하기 안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의 무관심속에 지난 4번의 지방선거 평균투표율이 55%(지난 4번의 대선 평균투표율은 74%)에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지역대표를 선출한다'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나 하나쯤 투표 안 한다고 별일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조직과 돈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선거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해야한다. 1기부터 3기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16곳 단체장의 기소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투표율이 낮을수록 기소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투표율이 52.7%였던 2기 지방선거의 기소율은 24.2%였던 반면, 48.8%의 투표율이었던 3기 지방선거의 기소율의 31.5%였다) 질 나쁜 인간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투표에 불참한다면, 결과적으로 질 나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이 된다. 제2의 당진군수는 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마감시간을 현행 6시에서 9시로 연장하고, 부재자투표소 설치기준을 현행 2,000명에서 대폭 낮추고, '사전투표제' 또는 선거 당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전산투표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대책 무관심'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상은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유권자 중 50%가 투표해서 그 중 50% 정도가 지지한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 90%가 투표해서 그 중 50% 이상이 지지한 진정한 후보가 우리의 지역대표가 되는 상상을.

Q.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8장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뽑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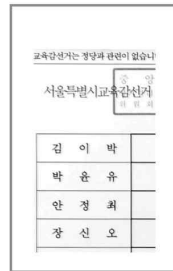
1차투표



2차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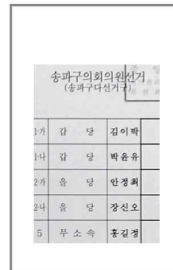


-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소속정당이 없다.
-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소속정당이 없다. 기호가 정당을 의미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기호 없이 추첨을 통해 이름만 나열되어 있다.
-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Q. 지역구 기초의원(구·시·군)의 투표용지 기호에 숫자와 가, 나, 대가 함께 쓰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1-가, 1-나, 2-가, 2-나"로 표기된다. 이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6.2 지방선거주요일정

5/13(목)~14(금)	후보자등록
5/14(금)~18(화)	부재자신고기간
5/19(수)~21(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5/27(목)~28(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6/2(수)	투표일

6.2 지방선거기본정보

- 선거권 : 만19세 이상 1991.6.3이전 출생자
- 선출인원 : 3,991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 선거제도 : 1인 8표제(제주도는 1인 5표제)
 - 광역단체장, 광역의원(선출직/비례대표)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선출직/비례대표)
 - 교육감, 교육의원

9. 아기와 함께 가고싶은 교회운동

아기와 함께교회가기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느낌은 저만이 갖는 건 아니겠지요. 그동안 주변에서 아기를 키우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도 읽었지만 아기를 키우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영유아실 (차보실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아기 아빠도 함께 오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에 있으면 아 이들이 뛰어다니서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히려 집에서 아기가 잘 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과 설교,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평소에 아기를 돌보느라 몸이 피곤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해 외로워서 영적인 공급이 어느때보다 갈급한데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이래저래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기독교 여성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8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아기와 함께 가기에는 교회의 시설과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다니기 좋은 교회 만들기' 교회에 제안하기도 하고,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개선해보아도 좋겠지요. 좋은 의견이 많이 모이면 매뉴얼로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① 쾌적한 환경

아기들은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청결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청소를 해주세요. TV케이블 등 복잡한 물건들은 아기의 손이 닿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두고요.

② 수유공간과 기저귀 교환할 공간 마련

교회 공간의 한계로 따로 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소파나 벤치 등 조금 넓은 의자를 두고 둘레에 커튼을 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기저귀는 아빠들도 갈아줄 수 있으니 수유실과 따로 마련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③ 냉장고, 전자렌지, 전기 포트 등


아기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먹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분유를 타거나 이유식을 데우기 위해서 전기포트와 전자렌지가 있으면 유용합니다. 집이 먼 경우에는 이유식이 식으니까 교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면 되겠지요. 여름에는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구요.

④ 휴지, 물티슈


아기 엄마들은 기저귀, 분유통, 이유식통, 휴지, 물휴지, 수건 등을 다 챙겨다니느라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유아 예배실에 함께 쓸 수 있는 휴지나 물티슈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기윤실 활동블로그(<http://trusti.tistory.com>)에서 '아기교회'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열매
관점 #1




아기와 함께 가고싶은 교회



기운실에서 '아기와 함께 가고 싶은 교회'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교회에서 아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기 부모는 어느 때보다 영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 반면, 예배 시간에도 아기를 돌보느라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교회에서 아기에겐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기운실에서는 아기 부모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아기와 함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자 2010년 6월17일(목)에 '아기와 함께 가고 싶은 교회' 포럼을 개최하여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제안하고 좋은 교회 사례를 소개하였다.

캠페인 진행경과



- ① 기운실 주부회원 모임에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함께 기획 시작
- ②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설문조사 : 기운실 뉴스레터를 통해 4가지 질문, 33명 응답
- ③ 아기와 함께 가고 싶은 교회의 사례 조사를 위한 탐방 2곳
- ④ 6월 17일(목)10시 30분, 청어람에서 아기와 함께 가고 싶은 교회 포럼 개최

포럼 내용

- ✓기조발제 '김은혜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 ✓아기와 함께 가고 싶은 교회에 필요한 것' 기운실 설문조사 발표
- ✓교회사례 발표 '내수동교회, 새문안교회

*이번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아기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아기를 돌봐주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



기획기사

저출산시대와 예배공동체*1)

교회는 영유아라는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육구, 임신·출산·양육의 긴 과정에 있어서의 영적 고갈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예배공동체에서 소외됨이 없어야 진정한 저출산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정직하게 듣고 교회의 교육부처,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가, 당회가 공감하고 동참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 가사의 문제는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이고 경제·사회·정치는 남성이 감당해야 하는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노동시장은 이미 변화되어 여성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출산양육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일은 여전히 의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가정의 관계의 근원적인 모형이 무엇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신학적 모형으로서 중요하다.(창1:26,27)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 모형이 기독교 가정의 모형이다. 남성과 여성은 연합된 하나이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가정의 건강함은 중요하다. 건강한 가정의 영적인, 정서적 충족이 없이 교회가,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

출산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활동과 근접한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 출산의 과정에서 남성이 제외될 수 없다. 출산은 근본적으로 선한 가정의 역할로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출산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이루기 위해서는 출산은 중요하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자녀와 자녀관계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가족을 정의내릴 때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부모요 자매요 형제이다. 적어도 기독교가정에서는 혈통과 혈연중심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에 대한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는 확대된 가정이 기독교적 가정개념이라 볼 수 있다. 교회에서 영유아 부서를 확보할 때에는 건물의 가장 좋은 곳, 가장 밝은 곳, 가장 좋은 곳에 배정해야 한다. 지금은 가장 열악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1) '아기와 함께 가고 싶은 교회' 포럼, 김은혜 교수 발제 중 발췌

10. 대한민국교육봉사단 - 씨드스쿨



비전을 향한 길을 만들어온 씨드스쿨

안녕하세요. 이번 씨드스쿨 3기에서 T로 활동한 꼬맹 문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가 좋아서 결정했던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대학을 진학했고 목적 없이 전공 선택을 한 후에 4학년 1학기까지 '넌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한번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블로그(<http://blog.seedsschool.kr>)에 오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10. 대한민국교육봉사단 - 씨드스쿨



그러던 중에 씨드스쿨 홍보 영
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에 너를 소리쳐라'는 타이틀 아

래,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꿈을 나누고 그 꿈을 향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자는 목표를 제 가슴을 찡 뛰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vision이 뚜렷해지면 당신의 삶은 simple해 집니다. vision에 맞는 것은 하면 되고, 아니면 안하면 됩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씨드스쿨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 씨드는 김태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의 순간부터 태민이와 친밀해지고자 무던히 애썼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태민이와는 가까워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태민이는 저의 질문공세에 푹 부러진 목소리로 '네와 아니오'로만 일관했습니다. 남은 커리큘럼은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에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T와 씨드의 관계를 넘어서 똑같이 미래를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실수투성이인 학생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태민이의 변화는 저보다 제 주변 T들이 먼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장난기가 가득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태민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씨드스쿨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은 이런 태민이와의 관계보다도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꿈을 가지고 도전하자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vision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었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는 순간, 이번 씨드스쿨이 저의 vision을 향한 길을 만들어준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청년일 뿐이지만, 제가 시간을 내어놓고 준비함으로써 누군가가 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이미 제가 원하던 기회였던 것입니다. 

* 본 글은 2010년 2학기 덕양중학교에서 진행된 씨드스쿨에 T로 참여한 대학생자원봉사자의 소감을 요약한 것입니다.

11. 회원운동 / 브랜드컨설팅

협력적
관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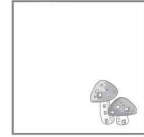


윤실이와 함께
윤리적 커피 마세요!



지난 5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윤실이와 함께 윤리적 커피를 마시려는 사람들이 홍대앞 카페 '커피밀(coffeemeal)'에서 모였습니다. 카페 커피밀은 윤실이네 간사들이 지난 3월말 '창의상상투어' 때 방문해서 책나눔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커피밀 대표 윤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걀노른자를 띄운 모닝커피의 유래를 아세요? 고종황제께서 커피를 즐겨 마시다가 속이 쓰리게 되자 어의가 커피에 달걀을 넣도록 지시를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 후 궁궐에 있었던 상궁들이 찻집을 열면서 모닝커피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수동교회 청년부에서 윤리적 소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가 정말 공정한가? 공정무역 커피 인증 과정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커피 생산지의 단일농작물 재배의 문제는 없는가?' '석유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무역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가?' 등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에 대한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커피를 통한 비즈니스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과 우리가 더욱 연구해야 할 윤리적 소비의 문제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토론의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는지 9시까지로 예정되었던 모임은 10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바리스타 목사님께 배우려고 했던 맛있는 드립커피 내리기 비법도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헤드릴 수 있을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를 함께 나누는 일은 언제나 가슴 뜨겁고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도 남지만요^^그날 오신 분들께는 준비한 '다정선물세트(커피밀 커피와 '교회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책)를 드렸습니다. 좋은 모임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 윤실이네는 특별히 기운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들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후원한 회원(이들을 우리는 기운실 헌신회원이라 부릅니다)과 함께 조출한 식사를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봄비가 내리던 지난 4월 15일 장충동 대장급(윤실이네 회원님이 운영하시네요) 한정식집에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멀리서 달려온 귀한 8명의 회원님들과 우창록 이사장님이 학수고대하던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음 만남의 어색한도 기운실회원이라는 이름아래 금방 하나가 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운실을 향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따라 윤실이는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회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 거리도 마다않고 달려와주신 회원님들의 사랑으로 기운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여정을 달려가겠습니다. ■■■



윤실이네 헌신회원들, 우창록이사장님을 만나다!



회원이보내온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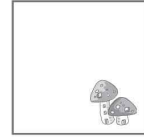
만나뵈은 지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 갔군요. 인사 늦어 죄송합니다. 대접도 잘 받았는데^^
 영결절에 모임에 나가 참 가까워서 기운실을 들여다보고 왔구나 하는 마음에 기쁘고 반갑기도 했지만 멀찌감치서 보았을 때는 그런대로 마음이 편(?)했는데, 가까워서 보고 오니 왜 그리 기운실이 안쓰럽고 가슴이 찢하던지요. 아직도 회원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제 게으름으로 여겨져 몹시 부끄럽기도 했구요. 그런 한편으로는 아직도 기운실이 살아(?) 있음에 휴~하는 안도감이 몰려 오기도 했습니다.
 그 날 밤, 짧은 회원님들의 열정과 기백을 보면서... 그리고 간사님들의 거룩한 수고를 보면서 다들 합심하여 무언가 조금만 더 꾀감을 뿜으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뱃속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어찌 더 도와 드리지 못할만이 몹시 미안하더군요. 압튼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졌던 기운실을 좀 살갑게 만나는 시간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늘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만 유독 그렇게 느끼는걸까요? 가끔 생각해보면 저 높은 벼랑위에 홀로 독야청청하는 단체로 치부될까 약간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한편, 그렇다면 어느 능선까지 내려와서야 뿌리를 내려야할까? 인데 그 자리가 참 적당히 타협을 하며 뿌리를 내리고 버틴다면 기독교 윤리에 물타는격이 될까 싶어 걱정되고...사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너만은 그래도 제발 그렇게 살아라~' 하는 심정인거죠.

말만 주절주절해대는 회원으로 치부될까 싶어 늘 그림자처럼 '살그머니 회원'으로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윤실이'를 짝사랑하는건 그래도 푸르름을 지키려는 수고와 애씀이 보였기때문이었던것죠.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짝꿍 회비내고 어지간히 생색내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2010년 4월 22일 장OO회원 드림



핵심리더십인터뷰를 통해 배우는 :
기독교윤리는 **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기독교윤리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작년부터 시작된 기윤실 브랜드컨설팅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기윤실의 핵심리더십 10인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핵심리더십은 이사장, 자문위원장, 공동대표 7인, 그리고 사무총장 총 10명이다. 옛지본 윤선민 대표의 일대일 심층인터뷰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정리 중에 있다. 이 인터뷰 내용 중에 기독교윤리에 이들의 답변만을 추려 나누고자 한다.

크게 하나는 정직! 법대로 사는 것이 윤리이다. 아무 길이 아니라 바로 이 길, 그 길로 사는 것이 윤리이다. 또 하나는 사랑이다.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조명하면 기독교윤리가 아닐까.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직이 기본이다. 그 다음은 공정함이다. 그 다음은 부차적인 것이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검소절제가 기본이 되어야 정직을 실현할 수 있다.

‘손해 보더라도 정경대로 살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이다. 엡 5:8,9을 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행위의 결과는 곧 존재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어떻게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는가?’ 기독교윤리가 물어야 할 물음이다.

예수님 같은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윤리의 핵심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범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구분될 수 없다. 개인에게는 실존적, 구조적, 통전적인 삶이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독교윤리가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기윤실 핵심리더십인터뷰를 통해 기윤실의 핵심가치가 분명히 서고 그 방향을 향해 또 다시 달려가는 윤실이를 기대해 본다. (무엇이 누구의 답변일까요~ >) 문득 윤실이네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진다. 기윤실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볼까~ 트위터에 로그인하기->기윤실 찾기->기윤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 남기기. 답변을 남겨 주시면 3명을 추첨하여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0년도 기윤실 사역일정표

2010 기윤실 활동내역

1월

- 04(월)-05(화) 간사 신년워크숍(서머셋팰리스)
- 15(금) 아이티 긴급구조 기금마련 캠페인 시작
- 18(월) 정기이사회(울촌)
- 26(화) 고양지역 회원모임 1차
- 28(목) 3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청어람)

2월

- 02(화) 고양지역 회원모임 2차(벨엘교회)
- 08(월)-11(목) 대사리 2기 윤리적여행(제주도)
- 10(수) 기윤실 비전레터 책 출간(예영)
- 11(목) 상임집행위원회(울촌)
- 17(수) 2010년 기윤실 기자간담회
- 22(월) 2010년 기윤실 회원총회(송실대)

3월

- 04(목)-05(금) 간사워크숍(엠셰르빌)
- 08(월)-10(수) 3기 목회자 7가지 습관 워크숍
- 12(금) 주부회원 모임
- 13(토)-4/10(토) 1기 미셔널 혁신 독서모임(5주)
- 18(목)-4/15(목) 2기 미셔널 혁신 독서모임(5주)
- 18(목) 씨드스쿨 창립 이사회
- 25(목) 기윤실 공동대표단 회의
- 30(월) 기윤실 공동대표단 회의
- 30(월) 2009년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4월

- 08(목) 기윤실 회원모임(우리들만의 방)
- 10(토)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기윤실 입장발표
- 19(월) 기윤실 회원모임 '우리들만의 방'
- 21(수) 일반인론 종교담당 기자간담회
- 22(목) 기독교론 기자간담회
- 23(금) 4대강 반대릴레이 금식기도(팔당)
- 24(월) 8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5월

- 03(월)-04(화) 1기 코칭클리닉 목회자과정
- 10(월) 비영리단체회계멘토링 협약식
- 13(목) 이시간담회(울촌)
- 17(월) 기윤실 지방선거캠페인 "Talk, Pray, Vote!"
- 18(화) 윤리혁신 독서모임 시작(매주 화, 6주)
- 24(월) "6.2지방선거와 기독교" 자료집 배포
- 25(화) 정당가입의혹조사 169명 해임·파면에 대한 논평 발표
- 28(금) 윤실이네 회원모임(커피밀)
- 31(월)-6/1(화) 1기 창의적교수법 목회자과정

6월

- 11(금) 기윤실 전국 네트워크 정기모임(대전)
- 14(월)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시작(4주)
- 14(월) 장신대원 교회밖 현장실천 OT
- 17(목) 아기와 함께 가고 싶은 교회 포럼(청어람)
- 22(화) 윤리혁신 독서모임 종강(매주 화, 6주)
- 29(화) 한국교회SR위원회 운영회의

7월

- 05(월)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종강(4주)
- 19(월) 정기이사회(울촌)

8월

- 09(월)-12(목) 2010 기독교사대회
(기윤실 교사모임 주관)
- 18(수)-21(토) 대교단 T스쿨
- 27(금) 기윤실 공동대표회의(울촌)
- 30(월)-9/1(수) 2010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필그림하우스)
- 31(화) 모현중학교(용인), 치평중학교(광주) 씨드스쿨 개강

9월

- 02(목) 창곡여자중학교(성남) 씨드스쿨 개강
- 06(월) 장신대원 교회밖 현장실천 마무리
- 08(수) 덕양중학교(고양) 씨드스쿨 개강

10월

- 08(수) 한국교회SR포럼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 책임"(청어람)
- 21(목) 기윤실 전국 네트워크 정기모임(서울)

11월

- 11(목) 교회재정세미나 "연말 제직회 공동의회 100배 즐기기"(청어람)
- 11(목) 기윤실 전국 네트워크 정기모임(부산)
- 15(월) 탐목회와 탐사역을 위한 실무연수 교육
- 19(금) 기윤실 내부간담회(서울영동교회)

12월

- 15(수) 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 20(월)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 20(월) <성서적 정치실천> 책 출간
- 27(월) 상임집행위원회(울촌)

2010기윤실 발간도서 자료집목록

도서

- ☐ 기윤실 비전레터 :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예영커뮤니케이션)
- ☐ 성서적 정치실천(프리칭아카데미)

자료집

- ☐ 2009년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신뢰의 열매"
- ☐ 2010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백서
- ☐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 ☐ 2010년 회원총회 자료집
-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백서
- ☐ 기윤실 지방선거 캠페인 전단 "Talk, Pray, Vote"
- ☐ 기윤실 기독교유권자 자료집 "6.2 지방선거와 기독교"
- ☐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자료집
- ☐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자료집



※ 기윤실의 모든 행사 자료집은 PDF 파일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법인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 기윤실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명)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 | |
|-----------------|-----------------------------|
| ① 연구, 출판, 교육 사업 | ② 캠페인 |
| ③ 활동모임의 조직 | ④ 기타 본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사명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② 본회 제반 활동에의 참가권 |
|--------------|------------------|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 본회의 정관을 실천할 의무 | ② 본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따를 의무 |
|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1절 총회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 | | |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초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 이사장은 의제와 일시와 장소를 1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 |

제12조(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 | |
|-------------------------|--------------------|
|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 ③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⑦ 제반 중요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 ⑧ 기타사항 |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자격을 갖춘 출석회원들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

제14조(제척사유) 총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은 제척(除斥)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2절 임원

제1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공동대표 7인 이내
- ③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공동대표 포함)
- ④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① 임원은 총회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③ 임원을 선출한 후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④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장과 공동대표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 3절 이사회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 ② 연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의
- ③ 예산, 결산서의 심의
- ④ 재산 관리의 심의 의결
- ⑤ 운영규칙의 제정
- ⑥ **상임공동대표의 선출**
- ⑦ **상임집행위원의 임면**
- ⑧ **사무처(총)장과 운동본부장의 임면**
- ⑨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⑩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의결
- ⑪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21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단 인사업무에 관한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회의전에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① 및 ②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위의 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절 공동대표

제24조(공동대표) ①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공동대표는 이사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하고, 당연직 상임집행위원이다.

제25조(상임공동대표) ① 공동대표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집행위원장을 겸직한다.

- ② 상임공동대표는 상임집행위원을 추천하고, 상임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제 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공동대표, 운동본부장 사무처(총)장 외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7조(임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유지 보급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집행
- ③ 연간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의 의결
- ④ 각 운동본부와 사무처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임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⑤ 사무처와 각 운동본부, 자원활동모임 등 각 사업단위간의 사업조정

제28조(상임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제 6절 사무처

제29조(사무처) ① 본회의 제반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화된 본회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③ **사무처(총)장은** 사무처의 제반 활동을 주관하고, 기윤실 네트워크를 연결, 조정한다.
- ④ **사무국장은 사무처(총)장을** 도와 사무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진행한다.

제 7절 운동본부 및 기타기관

제30조(운동본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한 운동본부를 둔다. 각 운동본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동역 및 연대활동 조직)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타 기관과 동역 및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8절 지역네트워크 조직

제33조(지역네트워크) ① 본회는 사명에 공감하는 각 지역의 단체가 기윤실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지역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네트워크는 자체 정관에 의해 구성되며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는다.
- ③ 본회와 지역네트워크는 서로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본회는 지역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책임이 있다.

제34조(명칭) 각 지역에 소재한 지역네트워크의 공식명칭은 그 지역의 명칭을 붙여 "OO기윤실"이라 하며, 본회와 지역기윤실을 통칭해 '기윤실 네트워크'라 한다.

제35조(자격취득 및 상실, 징계 등) ① 기윤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총회에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② 기윤실 네트워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자격상실을 결의할 수 있다.

제36조(조직구조) 각 지역네트워크는 조직의 대표인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그리고 사무처 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7조(활동 및 재정보고) 각 지역네트워크의 활동 및 재정보고는 자체 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의결한다.

제 4 장 재 산 과 회 계

제38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교환, 담보 제공, 권리의 포기 및 기채시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 비
- ② 후원금
- ③ 보조금
- ④ 기타수입금

제41조(세입·세출 예산 및 감사)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②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2회 이상 한다.
- ③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5 장 보 칙

제42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한다.

제44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제출서류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설립 등기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정
1차 개정 : 1995년 3월
2차 개정 : 2000년 7월 17일
3차 개정 : 2005년 2월 21일
4차 개정 : 2006년 2월 20일
5차 개정 : 2007년 2월 26일
6차 개정 : 2008년 2월 25일
7차 개정 : 2009년 2월 16일
8차 개정 : 2011년 3월 7일

기운실 전국 네트워크 소개

대전기운실		부산기운실	
대표	박규홍(한울교회 담임목사)	공동대표	김성인(부산장애인전도협회 상임이사)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최현범(부산중앙교회 담임목사)
실무자	여대수 사무처장, 유인식 사무국장	실무자	김기현 사무국장
연락처	042-256-5183, yodaso@naver.com	연락처	051-462-1558, ezrakim@hanmail.net
인천기운실		전주기운실	
공동대표	김홍섭(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박길원(시민교회 원로목사) 우남식(대학마을교회 담임목사)	대표	오성택(남전주성결교회 담임목사)
실무자	우조은 간사	실무자	김윤배 사무국장
연락처	joeunjoa@hanmail.net	연락처	063-237-1205, kyb0191@hanmail.net
진주기운실		청주기운실	
공동대표	백종국(경상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이신복(독산교회 담임목사)	공동대표	권성호(서남교회 장로) 박대훈(서문교회 담임목사) 한규영(충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실무자	곽필제 간사	실무자	이창호 사무국장
연락처	055-747-1484, jingiyun@korea.com	연락처	043-274-5852, cjcemk@paran.com
울산기운실		익산기운실	
대표	이창희(우리들교회 담임목사)	대표	
실무자		실무자	김윤근 목사
연락처	052-285-2072	연락처	ezer3@hanmail.net
LA기운실		워싱턴기운실	
실무자	유용석 장로	실무자	강창제 장로
연락처	www.cemkla.org, cem_la@yahoo.com	연락처	http://cemusa.org, cckang@cox.net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회원총회 3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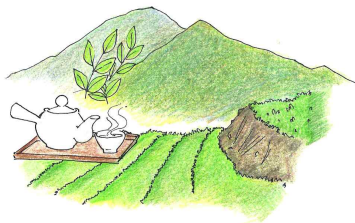
윤리적 커피를 마신다! 공정무역 커피 모두 모이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커피 한잔!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따져 커피를 마셔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던 한잔의 커피가 모이고 모여서 저 멀리 이국땅 한 어린이를 함박웃음 짓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 커피를 소개해 온 기윤실에서 이번 회원총회를 맞아 다양한 공정무역 커피를 소개합니다.~



- 아름다운커피의 3종 세트(히말라야, 안데스, 킬리만자로) www.beautifulcoffee.com
- 동티모르 피스커피 www.peacecoffee.co.kr
- 커피밀 커피믹스, 카푸치노믹스 <http://coffeemeal.com>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 위캔센터의 “위캔쿠키”와 맑고 깨끗한 유기농 녹차가 제공됩니다.

기윤실은 얼굴있는거래 (<http://www.efairtrade.co.kr>), 커피밀과 윤리적소비운동을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여정
기윤실 2011년 사역 후원 기도편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한 해 기윤실 사역은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후원해 주신 동역교회의 배려에 힘입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도 기윤실 사역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며,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 도 제 목

1. 기윤실 운동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기초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기독교운 리실천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은 여러 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한국은 일본보다 무고는 540배, 위증은 430배 높다. '세계가치조사'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순위는 조사대상 96개국 중 60위이다). 기윤실이 다양한 정직윤리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윤리적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기윤실이 2008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조사결과 17.6%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 기윤실의 교회사회적책임운동을 통해 한국교 회가 더 이상 교회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지역사회를 보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십시오.
4. 복음주의권 기독교민운동을 시작한 기윤실이 다원화되고, 상대화된 시대가운데 기독교민운동 단 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갖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견 해와 대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여전히 기윤실 운동은 유효한가”라는 물음 앞에 겸손하게 단체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From Me의 정신으로 기윤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1년 3월 7일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강영안 박은조 백종국 이동원 임성빈 주광순**

회원님의 관심사업을 선택해 주세요!

기윤실이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갖고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 회원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제시된 7가지 사업은 2011년 기윤실이 새로운 운동방향을 설정하면서 사무처와 상임 집행위원회, 이사회 논의 등을 통해 정리된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3월 4일(금) - 3월 9일(수)까지 진행되며, 오프라인 투표는 7일(월) 저녁 회원총회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회원님의 투표와 제안해 주신 의견은 2011년 해당 사업에 반영되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2011년 기윤실 사업에 회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투표 방법

1. 사전에 나눠드린 봉투 안에 투표에 사용하실 3개의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2. 행사장 왼편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 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3. 투표보드는 7가지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사업에 투표해 주세요. 총 3개의 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한 사업에 최대 2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는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각각의 사업에 덧붙여 주실 의견을 적어서 투표하실 때 같이 투표보드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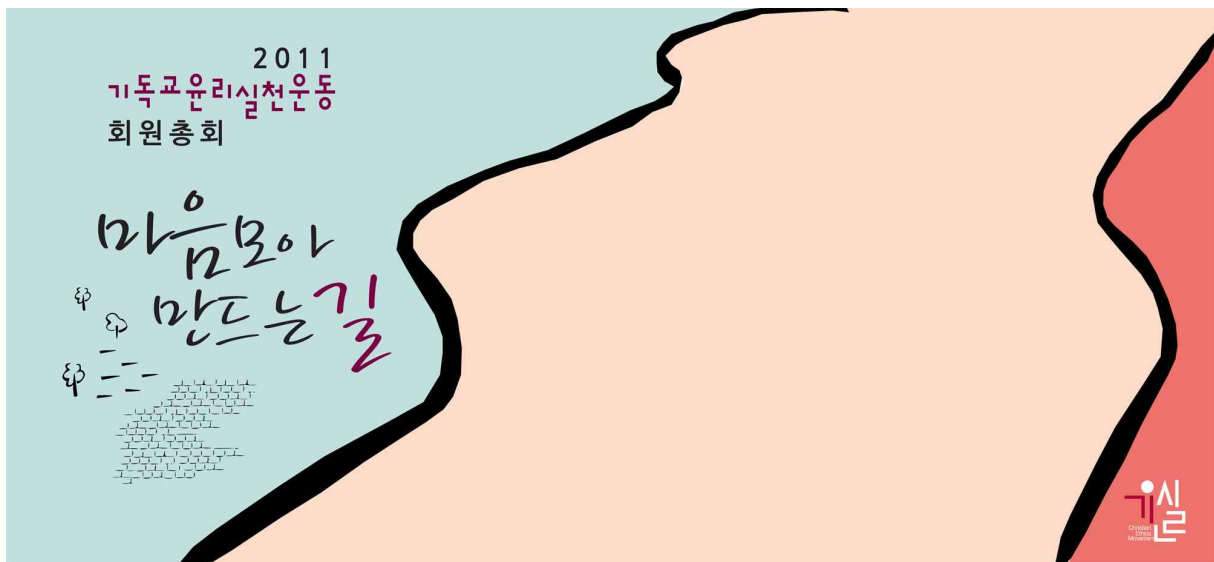
● 투표 보드 위치 안내

무 대 앞		
투 표 보 드	1	범 주
	2	사 업 명
	3	정직윤리운동
	4	1. 목회자유리운동
	5	2. 사회이슈실천운동
	6	교회신뢰운동
	7	3.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4.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	
	사회정치윤리운동	
	6. 기윤실포럼 - 싱크탱크	
	7. 기독시민교육운동	
행 사 장 뒤 편		



Recycled Paper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양코르지, 중질만화지)로 만들었습니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번지 세대빌딩 401호
T. 02-794-6200 / F. 02-790-8585
cemkt@hanmail.net / www.cemk.org